

□자료 가-3-1

고 김기설 동지 분신항거에 대한 입장

정당한 의사를 밝히려는 젊은이를 백주에 살해하는 폭력정권에게 어떻게 국민의 의사를 밝힐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의사 발표 및 개혁을 요구하는 자유가 쇠몽둥이에 의해 탄압받는 살인정치 체제가 현실이기에 죽음과 같은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수 없다. 국민의 의사를 정상적으로 말할 수 있었다면 고 김기설 동지는 몸을 불사르는 것으로 자기 의사를 밝힐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김기설 동지를 죽음으로 나아가게 만든 것은 노정권의 폭압 살인정치이다. 노정권이 바로 김기설 동지를 살해한 주범이다.

유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현재 국민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아픔을 극복하는 길은 노정권의 퇴진밖에 없다. 노정권은 퇴진을 요구하는 민의를 직시하라! 국정의 책임자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민을 살해한 책임을 지고 퇴진하라!

노정권은 젊은이의 애뜻한 죽음을 소영웅주의로 매도하는, 스스로를 더욱 파렴치하게 만드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유서에 나타나 있듯이 불쌍하신 부모님 때문에 안타까워 하고, 바로 그 부모님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국민의 아픔과 슬픔때문에 고뇌하면서, 죽음으로 노퇴진을 요구한 젊은이의 숭고한 뜻을 똑바로 직시하라!

본 대책위는 더이상의 젊은이의 죽음을 막는 길은 노정권의 퇴진밖에 없음을 확인하면서 숭고한 생명이 죽음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노정권의 퇴진을 위해 견결히 투쟁할 것이다.

구차한 변명은 필요없다. 노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1991. 5. 8

김기설동지 분신항거 대책위원회

□자료 가-3-2

고 김기설 동지의 분신항거에 대한 검찰의 천인공노할 왜곡작태를 온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한다!!!

살아서 살아서 끝까지 투쟁하자던 동지가 또다시 분신항거했다. 고 김기설 동지의 분신항거의 비보를 접한 우리는 비통과 통탄의 심정을 넘어 이제는 어떤 비장감마저 느끼고 있다. 날로 확산되는 전국민의 저항에도 아랑곳없이 최소한의 납득할만한 가시적 시국수습책조차 내놓지 않는 현정권에 의해 동지는, 아니 우리 국민은 또 한번 타살된 것이다.

현 정권은 사태수습은 커녕 노골적이고도 비열한 방법으로 우리의 동지를 두번 죽이려는 파렴치한 작태를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있다.

고 김기설 동지의 죽음에 대해 논의했다는 정해창 청와대 비서실장 주취 치안장관회의가 끝나자마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분신투신 관련 배후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나섰다.

이것은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전국민적 저항의 원인에 대해 그 진의를 파악하기는 커녕 박창수 열사의 죽음에서처럼 이미 드러난 사실조차 시신탈취 등을 통해 진실을 왜곡 축소하려는 현 정권의 안이하고 비열한 시국대응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단면이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지시를 통해 "배후에 자살을 부추기는 조직적인 세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하라며, "분신의 경위에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살가능성마저 있다"고 했다.

여기서 우리는 당장 두 가지 측면에서 검찰총장의 지시가 터무니없는 것임을 밝힌다.

지금까지 독재권력은 분신 등의 항거로 몰릴 때마다 배후세력 자살순번 운운하며 비열한 이태올로기 공격을 시도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 한번이라도 그런 배후세력이 밝혀진 사실이 있었나 묻고 싶다. 당연히 없는 일이므로 밝혀지지 않았다. 그리고 타살가능성 운운 하는 것 역시 논평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발상이지만 고인의 뜻이 왜곡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진실을 밝혀두어야겠다. 그는 죽기전 여러 동료 친구들에게 신분증 사진 등을 남기며 스스로의 분신결심을 암시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동료 친구들은 이 사실을 반신반의하며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던 것에 대해 몹시 비통해하고 있다). 또한 서강대 본관 5층 옥상은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가게 돼있다. 인간은 타의에 의한 죽음 앞에서 누구나 본능적으로 반항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사다리와 난간에서 다툼이 있었다면 옥상까지 올라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는데 저항없이 고이 사다리를 밟고 올라갈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옥상까지 사다리는 두 군데나 있음).

이번 정구영 검찰총장의 "분신패후조종 조사 발표"는 현 정권이 전국민의 처절한 저항을 피하여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국민은 더이상 이 정권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저항은 이미 견잡을 수 없이 힘차고 우리는 승리를 확신한다. 어떤 기만적인 시도도 국민의 뜻을 거역할 수는 없다.

"슬프게 아프게 살아가는 이땅의 민중을 위해 노태우정권은 퇴진해야 한다. 더이상 국민 모두에게 죽음과 슬픔을 안겨주지 말아야 한다."(유서 중에서).

국민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현 정권의 자유이지만, 현 정권이 물러나는 것은 전국민적 저항의 당연한 결과가 될 것이다.

1991. 5. 8

- 고 강경대열사 폭력살인 규탄과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 대책회의 -

자료 가-3-3

고 김기설 등지의 분신행거와 관련한
검찰의 왜곡수사 방침에 대한 전민련의 규탄성명서

오늘의 상황이 아무리 엄중하고 암울하더라도 우리는 자신의 생명을 끊는 분신행거가 더 이상 없기를 바라왔고 또 간곡히 호소해 왔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다시 우리와 함께 일하던 고 김기설 등지의 분신행거의 비보를 접하고 가슴을 찢는 비통함과 애절한 마음, 책임감을 금할 길이 없다.

고 김기설 등지의 분신행거는 고 강경대 열사의 폭력살인사건에 대한 전 국민적 분노와 항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근본적인 개혁조차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탄압의 칼날을 더욱 교묘하게 비르고 있는 현 정권에게 근원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한진노조 위원장 고 박창수 열사의 시신탈취 부검강행 사건 등에서 드러나듯이 오히려 강경한 태도를 더해 가고 있는 현 정권과 위정자들의 정치늠음, 이 사회에 뿌지 않은 꽃이 한 군데도 없는 암울한 현실에 의해 오늘 우리 젊음이 또다시 구조적으로 타살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죽음을 왜곡하려는 정권측의 인간 이하의 발상에 대한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일국의 검찰총장이라는 자가 "최근 운동권에 의한 분신 및 투신자살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중시, 이들의 배후에 자살을 부추기는 조직적인 세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라"고 전국 검찰에 긴급 지시하는가 하면, 서울지검은 "강신욱 강력부장검사 등 검사 5명으로 전담 조사반을 편성 8일 오전 서강대에서 발생한 분신 및 투신 사건의 수사를 위해 이날 중으로 강력부 검사를 사견현장에 보내 현장검증과 목격자 탐문 등을 통해 타살 가능성 및 불순세력과의 연계에 의한 계획적 자살인지 여부 등에 대해 수사키로 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현 정권의 발상이 일고의 가치도 없으며 스스로 자기파탄의 길에 접어들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단정한다.

이미 전민련은 고 김기설 등지의 분신과 관련해 진실과 공개의 원칙 속에 추호의 의심도 없이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고, 또한 우리는 검찰의 검사에도 적극 용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뻔뻔스럽고 상투적인 왜곡날조 선전수법에 '경악', '분노' 그 이외의 어떠한 표현을 선택할 수 없다. 우리 전민련은 현 정권의 어떠한 탄압과 왜곡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열사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국민들의 요구를 받들어 당당히 임할 것이다.

현 정권은 고 강경대 열사 이후 터져나오는 국민항쟁의 의의와 요구를 왜곡시키고 비열한 술책으로 오히려 민주와 양심세력을 중상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상투적 행각을 중단하라! 정구영 검찰총장은 열사의 죽음을 왜곡하고 민의를 호도하는 발언에 책임을 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물러가라! 그리고 현정권에 게 거둬 경고한다. 젊은이들의 더 이상의 희생과 비극적인 사태로의 발전을 막는 길은 오직 사태수습능력을 상실한 현 정권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동지가 남긴 고귀한 뜻을 받들어, 국민의 삶을 짓밟고 삶의 희망을 꺾어버리는 폭력독재정권의 퇴진과 이땅에 모든 사람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민주정부수립을 위해 끝까지 살아서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 호소한다. 이땅의 젊은이들, 동지들이여! 살아서, 살아서 투쟁하자고.

1991. 5. 8. 오후 4시

전 국민족민주운동연합

91년 5월 9일

자료 가-1-13 (수사기록 94~101)

진술조서

본 적 서울시
주 거 서울시 12
주민등록번호 50. 11. 21 성 명 양 경 숙
직 업 상업(포장마차) 전화번호

위의 사람은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년 5월 9일 서대문구 북가좌동에서 다음과 같이 임의로 진술하다.

1. 본인은 위 주거지에서 남편 정좌근 의 3명이 살고 있으며 서대문구 북가좌 2동(134번 버스 종점입구) 소재에서 포장마차를 89년도 4월말경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경영하고 있습니다.

1. 본인은 1991. 5. 7. 23:40경부터 02:30까지 저의 실내 포장마차에 분신, 사망한(서강대학교 옥상) 김기설 의 2명이 와서 술과 안주를 먹고 간 사실이 있는데 진술코져 합니다.

이때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료키 위해 문답하다.

문 : 진술인은 언제부터 실내 포장마차를 하고 있나요.

답 : 1989. 4월경부터 현재까지 저의 남편과 같이 포장마차를 하고 있습니다.

문 : 서강대학교 옥상에서 분신자살한 김기설 의 2명은 언제 어디서 보았나요.

답 : 1991. 5. 7. 23:40~02:30사이 저의 포장마차에서 입니다.

문 : 분신자살한 김기설은 진술인이 어떻게 해서 알고 있나요.

답 : 저는 약 3년 전으로부터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데 주로 동네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고 배달도 하는데 그날 23:00경부터 약 23세 가량 여자와 남자 25세 가량 3명이 들어와서 맥주와 안

주를 달라 하여 주고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얼굴도 봤는데 서강대학교 옥상에서 분신자살한 김기설이 유사하고 인상착이가 거의 70%로 비슷하여 알고 있고 기억을 할 수가 있던 것입니다.

문 : 서강대학교 옥상에서 분신사망한 김기설 의 2명이 같이 와서 술과 안주를 먹었는데 김기설 의 2명에 대하여 인상착이를 기억나는 대로 말하십시오.

답 : 사망한 김기설의 인상착이와 비슷한 사람은 키가 170센치가 되고 체격은 호리호리하여 얼굴은 안경을 끼고 턱이 빠져 있으며 머리는 생머리고 가르마를 땃는지 기억이 없고, 사망자와 비슷한 사람과 같이 왔던 여자의 인상착이는 키가 165센치 정도가 되고 얼굴은 잘 모르겠으며 호리호리한 체격이며 날씬하고 잘 기억이 없으며, 같이 있던 남자는 얼굴이 기억이 없고 사망자와 비슷한 사람과는 키 165정도가 되고 체격은 보통 체격이 됩니다.

문 : 어떤 옷과 소지품을 알고 있는지 말하십시오.

답 : 김기설과 비슷한 사람은 하의는 츄리닝을 입고 맨발에 밤색 슬리퍼를 신고 왔으며, 여자 1명도 남자 잠반대 배지색을 입고 하의는 청바지를 착용한 것 같았으며 신발은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기억이 없고 머리는 파마머리에 어깨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남자 1명은 남방에 바지를 입은 평범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었으며 소지품은 전부가 가지고 있던 것이 없었습니다.

문 : 사망한 김기설 의 2명이 와서 술과 안주를 먹고 있을 때 대화 내용이나 노래를 하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 : 이야기하는 내용은 기억이 없고 노래는 운동권 학생들이 부르는 소양강 처녀의 노래를 하였으며 떠들고 하였던 일은 없습니다.

문 : 포장마차에 탁자와 의자는 모두가 몇 개나 되는가요.

답 : 탁자는 7개고 의자는 15개 정도가 됩니다.

문 : 술을 먹고 갈 때에 누가 어느 곳에서 지불하였나요.

답 : 안경을 끼고 김기설과 비슷한 사람이 상의 잡

바 안호주머니의 지갑을 꺼내어 지갑 속에서 현금 1만원권 1매와 5,000원권 2매, 천원권 4매를 주어 받았는데 기억나는 것은 만원권 1매와 5,000원권 3매를 주는 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5,000원권 1매를 지갑 속에 넣고 천원권 4매를 주기에 얼굴을 제가 쳐다봐 기억이 납니다.

문 : 그럼 술과 안주를 먹고 3명이 나갔는데 어느 쪽으로 가던가요.

답 : 밖을 내다보지 못하여 모르겠습니다.

문 : 위 3명은 처음 보았던 사람입니까.

답 : 저의 포장마차에 처음 왔던 사람들로 그날 손님 많아서 일을 하느라고 인상착의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았습지만 안경을 끼고 돈을 받았을 때 기억이 납니다.

문 : 술값과 안주 값은 얼마나 되나요.

답 : 맥주 12병과 안주 3개가 되는데 값은 23,900원이 되었습니다.

문 : 분신자살한 김기철 외 2명은 본인 스스로가 음식을 먹고 나갔나요.

답 : 밤이 너무나 늦어 제가 집으로 가라고 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문 : 진술인 가게에서 그때 누구와 같이 있었나요.

답 : 저의 딸과 같이 위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문 : 이상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가요.

답 : 사실입니다.

문 : 위 사항들에 대하여 더 참고로 할 말이 있나요.

답 :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중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케 하다.

진술자 양경숙
서울지방검찰청
파견경찰관
경장 진용갑

자료 가-1-14 (수사기록 102~112)

진술조서

①성명 윤여덕 ②주민등록번호

③주거 서울

④본적 서울시

⑤직업 서강대 교수 ⑥연령

변사자 김기철에 대한 변사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 5. 9. 진술인의 위 주거지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1. 본인은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겸 총무처장으로 있으며 위 대학 본관 옥상에서 분신자살한 김기철군의 변사사건에 대하여 목격한 것과 국민연합대책본부 상황실장 등으로부터 들은 사실을 진술코져 합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 문답하다.

문 : 김기철이 위 대학 옥상에서 투신자살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그가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지는 못했고 그 직후 위 대학 본관 옥상의 흰 잠바차림의 남자가 잠시 서성이다가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 : 그 경위는 어떤가요.

답 : 1991. 5. 8. 어느 때나 다름없이 연희동 집에서 걸어서 출근, 막 위 대학정문을 들어서면서 무심코 고개를 들었는데 위 대학 본관 옥상에 상체만 보이는 흰 잠바차림의 남자가 잠시 보이더니 사라지고 없어 학생들이 플래카드를 거는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 생각없이 본관 사무실로 들어오는데 복도에서 총무과장 양인호가 "사람이 투신 자살했다"고 외쳐 저는 바로 사무실로 들어와 총장 등 학교 책임자들에게 전화연락, 어느새 총장님은 벌써 옥상에 계시면서 현장 보존 등을 지시하고 계셨고, 잠시 후에 내려온 총장 등과 총장실에서 그에 대하여 대화 중 위 대학 학생회장이

들어와 밖에 유가족, 애인, 국민연합대책본부 사람들이 와 있다고 하여 그들을 총장실로 들어오게 하여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문 : 정문에 들어서면서 옥상 위의 흰 잠바차림의 남자를 본 것이 몇시쯤인가요.

답 : 항상 집에서 걸어서 출근하는데 그 옥상 위의 남자를 본 것이 08:08경 될 것입니다.

문 : 그때는 이미 투신자살한 후였는가요.

답 : 제가 투신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막 본관에 들어섰을 때 총무과장이 사람이 죽었다고 했고 그 투신자살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위 대학 수위장의 말 등을 종합할 때 그 투신자살 직후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문 : 수위장이 어떻게 목격했다고 하던가요.

답 : 변사자가 떨어지면서 "노태우 정권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그대로 땅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도 순찰 중에 우연히 구호소리를 듣고 쳐다보니 이미 불이 붙은 채 떨어지더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문 : 그러면 진술인은 그런 구호소리를 듣지 못했는가요.

답 : 저는 그런 구호를 듣지 못했고 이미 제가 정문에서 본관까지의 거리가 걸어서 3분정도 되는데 제가 바로 본관에 들어서자 총무과장님으로부터 그런 투신자살을 들었던 터라 제가 정문에서 본관까지 올 때 이미 투신 행위 후로 생각됩니다.

문 : 진술인이 본 옥상 위의 흰 잠바차림의 남자와 투신자살한 자가 동일하다고 생각되지 않는가요.

답 : 그렇게는 절대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진술한 바와 같이 제가 막 정문을 들어섰을 때 옥상 위에 그 흰 잠바차림의 남자가 있었고 주시하지는 않았지만 본관까지 걸어오면서 외치는 구호나 투신 행위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 : 투신행위를 목격한 사람은 수위장 외 다른 사람이 있는가요.

답 : 수위장 정씨가 붙은 몸체가 옥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여 알고 있을 뿐 그 외도 그 시간대에 구호를 외치면서 떨어졌다면 또다른 목격자가 있을 것으로 제 나름대로 짐작은 하지만 확실하든 바는 없습니다.

문 : 진술인은 사고 직후 변사자의 동료를 자처하는 사람들을 만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네, 있습니다.

문 : 누구를 어떻게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가요.

답 : 09:20경 총장실에서 본인과 총장 등 학교 책임자들과 위 투신 자살건에 대하여 대책회의를 하고 있던 중 위 대학 총학생회장 표홍철(영문과 4년)이 총장실에 들어와 밖에 변사자 동료와 애인 등이 와 있다고 하여 그들을 총장실로 들어오게 한 후 변사자의 자살 이유 등을 물었더니 그 동료라는 사람이 "변사자는 몇일 전부터 자살을 하겠다며 유서까지 갖고 다녔는데 금일에는 새벽 5시까지 변사자와 동승동에 있다가 변사자가 자기를 따돌리고 어디론지 가버려 연세대와 서강대가 있는 신촌 쪽으로 생각하고 오던 중에 뉴스에 서강대에서 투신자살했다는 보도를 듣고 서강대로 오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문 : 그의 그 변사자의 동료라는 사람과 대화가 있었는가요.

답 : 위와 같은 변사자 동료의 말에 의구심이 생겨, 그에게 변사자의 신분과 이름을 물었더니 김기철, 한양대학생이라고 하여 즉시 저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위 한양대 학생처장에게 전화확인 하였더니 그런 이름을 가진 학생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기억나는 것은 그 변사자 동료의 이름 등을 물었더니 이름은 밝히지 않고 청년단체 회원이라고만 하였고 그의 남자 3명이 더 있었습니다.

문 : 그의 총장실에 들어섰던 남자 3명의 인적 사항을 아는가요.

답 : 그의 남자 3명은 그 변사자의 동료가 말하는 것을 듣고만 있어 저희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분을 물었더니 인술자 격으로 보이는 40대 초반의 남자가 국민연합대책본부 상황실장이라고 밝혀 총장이 입수한 변사자의 유서에 기재된 선택이, 서준식을 아느냐고 했더니 선택이는 위 국민연합대책본부 인권위원이고 서준식은 동 본부 인권위원장이라고 위 상황실장이라는 사람이 말하더군요.

문 : 그래서 어떻게 하였는가요.

답 : 그 총장실에서 1시간 가량의 긴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언동에서 석연찮은 점에 대하여 계속 추궁

문의를 하다가 저는 9시 50경에 직원 인터뷰차 나왔습니다.

문 : 선택이는 어떤 인물인지 아는가요

답 : 변사자가 쓴 유서에는 선택이형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지만 박홍 총장님은 그가 곧 저희 학교에 복학한 경제학과 3학년 재학중인 김선택이라고 말했으며 그는 72학번으로 서울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전민련 정치국장 등을 지낸 운동권 핵심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유서에 기재된 서준식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지요

답 : 서준식은 운동권 출신으로만 들어서 알고 있을 뿐 그의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는 모릅니다.

문 : 그러면 변사자가 한양대학생이라는 것은 위 변사자의 동료를 통해 처음 알게 되었는가요

답 : 그전(0820)에 이미 변사자의 유서를 입수한 총장님이 그 유서에 선택으로 기재된 것을 보고 그가 바로 저희 대학 김선택으로 짐작, 교무과 직원으로 하여금 김선택의 집에 전화통화 확인토록 한 바, 그 직원이 변사자는 한양대생이라고 김선택이 말하더라고 전갈하며 그때 이미 저희는 변사자가 한양대생으로 짐작하고 있었고 그후 변사자의 동료로부터 같은 말을 듣고는 확신을 갖고 제가 직접 확인한 바 거짓이었습니다.

문 : 변사사건 후 학생들의 동요는 없었는가요

답 : 변사자가 저희 대학생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 학생들에게 알리기 위해 교무과 직원을 대자보를 붙이는 학생들에게 보냈더니 학생들은 변사자의 인적 사항, 신분에 대하여는 중요치 않다고 편견을 듣고 왔다고 하면서 학생들이 다른 때에는 달리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 : 김선택이 변사자가 한양대생이라고 할 때 알면서 그렇게 거짓말 했다고는 생각지 않는가요

답 : 당시는 믿었지만 나중에 확인한 바 한양대생이 아니었고 그 사실을 안 총장님이 김선택에게 야단을 치는 과정에서 김선택은 그 정도의 정보를 준 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총장님께 말했다고 들었는데, 여러가지를 종합해 볼 때 김선택은 기히 변사자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됩니다.

문 : 변사자의 동료가 뉴스를 듣고 왔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했는가요

답 : 저는 뉴스를 듣고 왔다는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는데, 그 이유는 그 시대에는 기자들이 현장에 와 있지 않았고 사망직후 보도된다는 것은 현장상황을 잘 알고 있던 자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았으며 지금 생각하면 변사자의 동료나 상황실장 등의 말들이 전혀 납득이 가지 않고 있습니다.

문 : 변사자가 뛰어내린 옥상은 아무나 올라갈 수가 있는가요

답 : 그 옥상출입문은 시정된 출입문으로, 더욱 그 열쇠를 관리과에서 특별관리하기 때문에 절대 아무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문 : 그런데 변사자는 어떻게 그 옥상에 올라갔을까요

답 : 저도 그점이, 심히 의아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변사자가 옥상에 올라간 것이 이해가 가지 않으며, 그 철문을 여러 명이서 밀어 부수고 들어갔는지, 아니면 달리 열쇠를 만들어 열고 갔을까 하는 추측을 할 뿐입니다.

문 : 사건 직후 옥상에 올라가 보았는지요

답 : 투신 자살 후 제가 직접 옥상에 올라가 보았는데, 옥상 출입철문이 부서진 흔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누군가 교내 사정에 밝은 사람의 협조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문 : 위 투신자살건을 목격하고, 주변인물들로부터 그에 대한 말을 듣고 확인까지 한 진술인으로서 변사자 한 사람의 단순한 자살로 생각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협조 내지 관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지요

답 : 처음부터 끝까지 위 변사사건에 관련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변사사건은 우연한 자살행위가 아니라 사건에 일사불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여러 사람이 합동하여 저지른 엄청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 :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김선택과 국민연합대책본부 상황실장이란 자가 위 변사사건의 모든 전모를 알고 있을 것으로 짐작되며 다시는 이런 엄청난 행위가 없었으면 할 뿐입니다.

문 : 이상 진술은 사실대로 인가요

답 : 네, 모두 사실대로 진술했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케 하다.

진술자 尹汝德

1991. 5. 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정진섭

검찰주사(보) 김형수

☐자료 가-1-15 (수사기록 113~120)

진술조서

①성명 정삼정(鄭三正)

②주민등록번호

③주거 서울

④본적 서울

⑤직업 교직원 ⑥연령 39세 1952. 3. 2생

변사자 김기철에 대한 변사사건에 관하여 1991. 5. 9.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1. 저는 경남 산청중학교를 졸업하고 오아시스 레코드사 등에서 프레스공 등으로 일하다가 1984. 5. 1. 경부터 서강대학교에서 총무과 소속 직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여 현재 1990. 2월경부터 부총장의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서울 1구 4844호 진정색 로얄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합니다.

1. 저는 1991. 5. 8(수) 08:07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소재 서강대학교 본관 4층 건물에서 사람이 분신투신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물으시는 대로 사실에 따라 진술하고자 출석하였습니다.

이때 검사는 위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고자 다음과 같이 임의의 문답하다.

문 : 진술인의 성명을 말하십시오

답 : 예, 정삼정(남, 39세)입니다.

문 : 진술인은 사람이 분신투신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있습니다.

문 : 그 일시 및 장소를 말하십시오

답 : 1991. 5. 8(수) 08:07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1 소재 서강대학교 본관 4층 건물에서 사람이 불을 붙이고 투신하는 것을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이 위 장면을 목격한 위치는 어디인가요

답 : 예, 그곳은 서강대학교 정문에서 약 30-40미터 본관 쪽으로 올라간 지점으로 학교 체육관과 등나무가 있는 휴식공간으로 가는 길과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그곳은 정문에서 본관으로 향하는 2갈래길 중에서 우측길의 우측 인도였습니다.

문 : 진술인이 목격한 위치와 사람이 투신한 위치를 학교 전경 사본에 표시하여 줄 수 있는가요

답 : 예, 제가 표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때 검사는 검사가 제시하는 학교전경 도면 사본에서 진술인이 목격한 위치와 사람이 투신한 위치를 진술인으로부터 표시받아 본조서 말미에 편철하다.

문 : 진술인이 목격한 시간은 정확한가요

답 : 예, 정확합니다.

문 : 어떻게 정확하다고 진술할 수 있는가요

답 : 제가 서강대학교 부총장의 운전기사로 일한 것은 1990. 2월경부터로 1991. 3월경부터는 서정호 교수가 부총장으로 취임하여 제가 서정호 부총장님을 출퇴근시켜 드리는데, 차는 서강대학교 본관 지하차고에 두고 차를 몰고 부총장님택으로 가서 대기하였다가 아침에 출근을 시켜드립니다. 그런데 부총장님택이 의왕시 포일동 소재 플라자빌라이고 학교에서 그곳까지는 약 40내지 45분이 보통 걸리고 부총장님은 09:00경 택에서 출발하므로 저는 통상 08:50경까지는 부총장님택에 승용차를 댍니다. 그래서 저는 08:00경까지는 학교에 들어가 차를 몰고 출발을 하므로 학교에서 도보로 약 15분 거리인 집에서 매일 07:50경에는 규칙적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날도 07:50경에서 출발하여 08:05경에는 학교에 도착을 하였고 정문에서 상당점 극장인 메리홀 관리인인 박태환, 경비원 최홍신, 그리고 용역으

로 일하는 성명불상자와 약 1분간에 걸쳐 인사겸 농담을 하고 걸어올라 오는 중이었으므로 목격한 시간이 그날 08:07경이라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문 : 진술인이 목격한 내용을 말하십시오.

답 : 제가 걸어올라 가다가 본관 쪽에서 "노태우 정권 타도하자"라는 소리가 들려 쳐다보니 본관 우측 옥상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2-3초간 서성이더니 손이 얼굴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담배를 피어나 하고 생각한 순간 순식간에 불이 상체에 붙더니 하체로 번지고 제가 보는 방향에서 우측으로 그 사람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돼, 안돼"라고 3-4회 소리치며 본관 쪽 추락지점으로 뛰어올라 갔습니다.

문 : 그후 어떻게 되었는가요.

답 : 제가 지하차고 입구 쪽으로 뛰어나니 학생관(씨관이라고도 함) 쪽에서 학생들이 뛰어나고 본관 경비실겸 기사실에서 야간 근무자 2-3명이 뛰어나왔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옷을 벗어 불을 끄고 저는 다른 학생들과 차고로 들어가 소화기를 찾으니 눈에 안 띄어 병원으로 투신한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차를 꺼내었습니다. 그러자 어느 학생이 잔디밭에 있는 플래카드를 주어와 제가 저의 차 뒷좌석에 깔고 학생이 가져온 이불을 그 사람에게 둘러쳐주고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학생 1명과 함께 비상등을 켜 다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시간은 그날 08:15경이었습니다. 제가 도착 후 시계를 보았었습니다. 당시 의사들이 언제 그랬느냐고 저에게 물어보아 시계를 보면서 약 08:10경이라고 말하였으므로 도착시간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간 학생에게 그곳에 있다고 말하고 저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는데 학교에 도착하여 보니 08:25경이었습니다.

문 : 투신한 사람이 투신 전에 다른 말은 하지 않았는가요.

답 : 하지 않았습니다.

문 : 당시 옥상에 다른 사람은 없었는가요.

답 :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이 목격한 위치에서 옥상이 전부 보이는가요.

답 : 옥상의 앞부분은 보이나 뒷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문 : 정문에서는 옥상의 뒷부분도 보이는가요.

답 : 뒷부분까지는 안 보이나 제가 본 위치보다는 조금 더 보일 것입니다.

문 : 당시 올라가던 길에 다른 사람도 있었는가요.

답 : 다른 사람이 있었으나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 학교에서 투신자를 신고 출발한 시간은 언제인가요.

답 : 그 시간은 경황이 없어 잘 모르나, 제가 비상등을 켜고 라이트를 켜 후 마구 클락손을 누르려 달려 갔으니 2-3분 정도 병원까지 걸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신촌로타리에서 차가 밀려 반대 차선으로 마구 운전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출발한 시간은 대략 08:12경이나 08:13경일 것입니다. 신고 갈 때에도 저는 온 길로 갔습니다.

문 : 투신 직전에 본관 앞에서 시위가 있거나 다른 학생 등이 있었는가요.

답 : 시위는 없었고, 다른 학생 등이 있었는지는 제가 목격한 위치에서 본관 앞부분은 경사가 쳐서 보이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문 : 투신 직후 학생관에서 나온 학생 중 아는 사람이 있는가요.

답 : 모르는 학생들이고, 플래카드를 주어진 학생이나 같이 병원에 간 학생도 인적 사항은 모릅니다.

문 : 학교에 돌아온 후에는 무엇을 하였는가요.

답 : 차가 피투성이가 되고 하여 부총장님을 모시러 갈 수가 없어 상담실의 인명불상 여선생님이 연락을 해주고 저는 본관 차고문에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였었습니다.

문 : 당시 야간 직원은 누구였는가요.

답 : 야간 경비 이창욱 등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문 : 투신자가 어떻게 옥상에 올라갔는가요.

답 : 옥상은 항상 채워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이 플래카드를 붙일 때에도 학생과에 둘러 승인을 받아 경비실 근무자와 함께 올라가 붙이고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은 투신 후에 옥상에 가보지는 않았는가요.

가요.

답 : 서울지검에서 검사분들이 현장검증을 왔을 때 같이 올라가 본 사실이 있을 뿐입니다.

문 : 진술인이 투신자를 옮길 때 상태는 어떠하였는가요.

답 : 전신이 거의 다 타고 코에서 피가 2번 클럭클러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 : 차는 세차를 하였는가요.

답 : 예, 세차를 하였는데 다른 유류물은 없었습니다.

문 :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단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정 삼 정

1991. 5. 9

서울지방검찰청

김 사 송 명 석

검찰주사(보) 김 성 수

* 서강대 조감도 <생략> (수사기록 120)

□자료 가-1-16 (수사기록 121~125)

진술 조서

①성명 권영호 ②주민등록번호

③주거 서울

④본적

⑤직업 교직원 ⑥연령 53세 1937. 12. 5생

피의자 에 대한 피의 사건에 관하여 1991. 5. 9. 서울지방검찰청 1015호에서 임의로 진술하다.

1. 본인은 위 거주지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센터 주임으로 재직하고 있습

니다.

1. 저의 부서에서 관리하는 본관 에이동 옥상출입문 열쇠에 대하여 물으시면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이때 위 진술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 문답하다.

문 : 진술인이 권영호인가요.

답 : 예, 제가 권영호입니다.

문 : 진술인은 언제부터 서강대학교에서 재직하고 있는가요.

답 : 1989년 3월 경 대학내 어학실험실 관리요원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기술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 : 현재 진술인이 일하는 커뮤니케이션 센터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요.

답 : 텔레비전 폐쇄회로를 통하여 강의실에 수업을 지원하는 부서로 본관 3층과 4층에 위치하여 있는데 3층은 소장실과 사무실, 영화감상실, 기술실 등이 있고 4층에는 텔레비전 스튜디오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은 4층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 열쇠를 관리하고 있는가요.

답 : 예, 옥상 위에 스튜디오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하는 기계시설이 있어 옥상출입문을 통하여야 하기 때문에 열쇠를 총무처로부터 83년도 경부터 받아 저의 부서에서 보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 : 옥상 출입문 열쇠는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가요.

답 : 3층 소장실 방안에 있는 열쇠함에 넣어두고 필요할 때 사용하는데 열쇠함에 자물쇠를 채워 그 열쇠함 열쇠는 저와 제 밑에 있는 강기철씨와 정연희라는 소장님을 보좌하는 여직원인 가지고 있습니다.

문 : 옥상 출입문 열쇠는 다른 열쇠와 같이 묶여져 있는가요 따로 있는가요.

답 : 그 열쇠는 4층 스튜디오 사무실 열쇠 20여 개와 같이 묶여져 있으며 낱뿔을 하여 고정시켜 놓고 있어 저의 직원 외에 다른 사람들은 그 열쇠가 옥상 열쇠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안에는 각종 값비싼 기자재가 많이 있어 열쇠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문 : 최근에 그 옥상 열쇠를 사용했을 때가 언제인가요

답 : 저희가 정기적으로 기계관리를 위하여 옥상에 올라가는데 15일 내지 20일경쯤으로 기억합니다.

문 : 위 열쇠를 부서 직원이 아닌 다른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요구에 의하여 내준 사실이 있는가요

답 : 그런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어쩌다 가끔 학생들이 옥상출입문 옆에 붙어 있는 저의 스튜디오에 붙속 들어와 옥상출입문 열쇠를 달라고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는 열쇠가 없으니 경비실에 알아보라고 하여 돌려보냅니다.

문 : 열쇠함의 열쇠는 하루에 몇번 정도 꺼내는지요

답 : 제가 아침에 출근하여 열쇠함을 열어 열쇠를 꺼내가지고 스튜디오에 올라가 문을 열고 제 책상에 넣어두거나 주머니에 넣고 문을 잠근 다음 퇴근을 합니다.

문 : 5월 7일 저녁에도 열쇠를 소장실 열쇠함에 넣고 퇴근하였는지요

답 : 예, 평시와 마찬가지로 그러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은 5월 8일 아침에 몇시에 출근하였는지요

답 : 평시와 마찬가지로 아침 8시 30분에서 40분경에 출근하여 보니 사고가 났다고 하였습니다.

문 : 출근하여 보니 소장실에 있는 열쇠함은 아무 이상이 없었던가요

답 :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열쇠도 놓아두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문 : 5월 7일날 열쇠를 하루종일 보관하며 소지하고 있었는지요

답 : 제 책상 위에 놓고 있다가 퇴근할 때 열쇠함에 넣었으며 누구든 빌려준 사실이 없습니다.

문 : 이상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 : 예, 사실입니다.

문 : 더 할 말이 없는가요

답 : 있는 그대로 말하였을 뿐입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

므로 간인한 후 서명 날인케 하다.

진술자 권 영 호

1991. 5. 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경순

검찰주사(보) 임영근

☐자료 가-1-17 (수사기록 126~135)

진술조서

①성 명 송 주 수 (宋 柱 洙)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거 서울

④본 적 서울

⑤직 업 경비원(서강대) ⑥연 령 47세 1944.6.12생

피의자 에 대한 피의 사건에 관하여 1991. 5. 9.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1. 저는 위 주거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처 배호진(43세, 무직), 딸 송은숙(19세, 학생), 아들 송종훈(17, 학생), 아들 송종덕(10세, 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1. 저는 지금 현재 서강대학교 총무과 소속 경비로 일하고 있는데(80년 10월경부터) 금년 5. 8일 분신한 사람과 관련된 일에 대해 물으신다면 사실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에 검사는 진술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임의로 아래로 같이 문답하다.

문 : 진술인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요

답 : 저는 1980. 10월경부터 서강대학교 총무과 소속의 경비직원으로 현재까지 일해 오고 있습니다.

문 : 이 일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요

답 : 제가 처음 서강대에 들어서기는 5년간 야간경비원으로 일했고 그 다음부터는 주간경비원으로 정문과 후문의 경비와 내부순찰을 주로 했습니다. 주간경비를 주로 할 때 근무시간은 아침 6시에 출근해 오후 2시까지 할 때가 있고 오후 2시에 출근해 밤 10시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는 제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해왔는데 이것을 우리 경비들 사이에는 "주간근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가 근무하게 된것은 정문에서만 제가 3년간 계속 힘든 근무를 했기 때문에 순환근무를 하게 된 것입니다.

문 : 진술인은 서강대학교에서 금년 5월 8일 아침 8시를 전후하여 분신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요

답 : 알고 있습니다.

문 :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답 : 제가 그 날 아침 8시 5분경에 정문으로 출근하기 위하여 들어오니까 정문근무자 최홍신씨가 저에게 "분신한 학생이 있으니 빨리 올라가 보라"고 하여 투신한 지점(추락지점) 옆에 있는 본관 경비실에 뛰어 올라 갔습니다. 제 근무복이 정문에 있어 근무복을 가지고 나오니 부총장님 운전기사인 정삼정이 운전하는 485(부총장님 승용차)가 제 앞을 지나가고 그 차안에는 어떤 학생이 한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그때 근무복을 가지고 나올 때 분신한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있었음) 제가 본관 쪽(경비실 있는 쪽)으로 뛰어가 보았더니 경비실 앞에 핏자국이 있는 것을 보고 본관경비실로 들어가 제 근무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무전기를 가지고 본관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기 전에 총장님 비서가 와 직원 주소록을 달라고 하였으나 찾기도 없기에 없다고 하고 정문근무자에게 전화로 학생처장님(전준수 교수)에게 하라고 한 다음 제가 옥상으로 뛰어올라갔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더니 박대장(서강대에서 야간경비를 의뢰한 회사 석산의 현장근무책임자), 광태환(강당에서 근무하는 경비), 학생으로 보이는 사람 3명 정도가 옥상에 있었고, 이상욱은 4층으로 통하는 본관 출입문 쪽에 있었습니다. 옥상에 갔더니 투신한 사람의 양복, 시계, 안경, 신나 2통, 신문이 있었고, 학생들이 유류품 있는 주위에 서서 유서를 보고 적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총장님, 비서, 수위장 정재호와 함께 유류품이 있는 옥상으로 오더니 총장님이 유서를 확인하고 총장님이 저에게 "한 사람이 남아서 지키라" 하고 내려가고 조금 있다가 학생들도 내려가고 저 혼자 그곳에 남아 유류품이 있는 곳에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옥상으로 통하는 대형 유리철문이 있는 곳까지는 근무자들이 몇번 왔다갔다 했고 오전 10시 정도까지 저 혼자 유류품이 있는 옥상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총무과 이 주임으로부터 무전이 왔는데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잠그고 건물 내부에 들어와 있으라고 했고, 이어 총장님이나 총무과 지시 없이는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했고, 수위장 정재오로부터 출입문 열쇠를 넘겨 받았습니 다. 실상 총장님이 내려가신 후에는 출입문을 잠그고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사이에 기자들이 몇 사람 왔다가 갔습니다. 제가 출입문 열쇠를 정재오로부터 넘겨받아 있던 중 기자들이 왔기에 총무과 지시 없이는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하였더니 열어달라고 하기에 가지고 있던 무전기로 총무과의 승인을 받아 문을 2번에 걸쳐 열어주고 2번 다 문을 잠그고 있다가 기자들이 나오기에 문을 열어주고 다시 문을 닫아 두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고 기자들이 나갔을 때가 오전 11시 40분경 정도로 기억합니다. 기자들이 5-6명씩 무리를 지어 2번 왔다갔다 간 다음 총무과에서 무전으로 저에게 철수하라고 하기에 제가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옥상출입문 열쇠를 본관경비실에 갖다두고 저는 식사하러 학생관 지하식당으로 갔습니다.

문 : 식사하러 갔다가 온 다음에는 어떻게 하였나요

답 : 옥상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경비실에 들어갔을 때 경비실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경비실 앞에(분신자가 추락한 부근) 수위장 정재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경비실 열쇠로 경비실을 잠그고 식사하러 갔다가 10여분만에 식사하고 다시 경비실(본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시 50분경 수위장 정재오가 식사하고 들어와 경비실을 살펴보고 어디론가 가더니 저한테 무전이 왔는데 "옥상출입문을 열어준 적이 있느냐, 옥상에 사람이 있다고"고 하기에 제가

"옥상문을 열어준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수위장 정재오가 본관 옥상 키를 가지고 빨리 올라오 라고 하여 제가 키를 가지고 올라갔더니 경비장 정재 오, 총무과 이 주임이 출입문 밖에 나가 있었고 총학 생회장이 유류품을 박스에 담아 옥상출입문 밖에 내 려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들을 가지고 내려가 는 것을 보고 문을 잠그고 내려왔습니다. 마지막에 잠 그고 내려 올 때는 내가 잠갔는지 정재오씨가 잠갔는 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문 :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답 : 그 뒤에는 제가 경비실로 내려와 평소 근무하 는 대로 외곽순찰을 하였습니다.

문 : 검찰청에서 직원들이 나온 것은 언제인가요.

답 : 제가 점심을 먹고 경비실에 쭉 있다가 수위장 이 옥상에 누가 있다며 가보자고 하여 올라갔더니 옥 상출입문이 누가 열었는지 열려 있었고(출입문 열쇠 는 제가 가지고 올라갔음) 총학생회장이 유류품을 박 스에 담아가지고 있으면서 검찰청에서 나온 검사님들 과 이야기하면서 있었습니다.

문 : 진술인이 처음 분신하고 뒤이어 옥상으로 올 라갔을 때 옥상출입문이 열려 있던가요.

답 :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옥상출입문 열쇠는 야 간 근무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열려는 지는 모르겠고, 수위장 정재오로부터 나중에 듣기로 는, 열쇠로 문을 닫았을 때처럼 잠금장치가 빠져나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이 두번째 수위장 정재오로부터 열쇠를 가지고 올라와 보라는 말을 듣고 옥상에 올라갔을 때 옥상출입문이 열려 있던가요.

답 : 12시 50분경 제가 올라갔을 때도 열쇠는 제 손에 있었는데 어떻게 문이 열렸는지 문이 열린 상태 도 잠금장치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빠져 나와 있었습 니다.

문 : 잠금장치가 빠져 나온 상태로 문이 열려져 있 었다는 말인가요.

답 : 제가 오전에도 그 말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유심히 보게 된 것이고 학교내가 분신으로 기자들이 여러 명이 찾아오고 난리를 치는데 문을 분 명히 잠갔음에도 열려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문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검찰청에서도 나와 있었는데 수위장 정재오가 학생들에게 문을 어 떻게 열었느냐고 물으니 어느 학생인지는 모르겠는데 "미니까 열리던데요" 하고 대답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문 : 옥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문을 반드시 통해야 하는가요.

답 : 이 문을 통하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문 : 그러면 이 문을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이나 분 신자가 열었을까요.

답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신건으로 문제가 된 다음에 제가 혼자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 력으로 문을 밀어보았지만 완력으로 열 수가 없었 습니다.

문 : 이 문을 열 수 있는 다른 보조열쇠가 있는가 요.

답 : 저는 정문 근무를 오래했기 때문에 다른 보조 열쇠가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문 : 이 문은 항상 열어두나요.

답 : 항상 잠가둡니다. 학교 내 옥상으로 통하는 문 의 열쇠는 학생들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항상 잠가둡 니다. 제가 정문 근무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근무를 휴가때문에 대신하거나 결원으로 대신 근무하게 되면 저도 본관 옥상문을 잠그는 등의 근무를 하기 때문에 항상 잠가둔다는 정도는 알고 알고 있습니다.

문 : 본관 건물을 들어가자면 어떻게 하나요.

답 : 본관 건물은 아침 7시반까지 건물출입문과 복 도문을 열어두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없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고, 저녁 6시경 건물 각층을 돌아봐 그 층에 사람이 없으면 복도문을 잠그고 7시 정도쯤 현 관도 정문을 제외하고는 잠가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그리고 저녁 9시반까지는 경비실을 통하는 출입 문을 제외하고 모든 문을 잠급니다. 그 중간에 문이 열려 있으면 출입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문 : 정문 출입시 신나통을 들고 출입하는데 아무 런 지장이 없나요.

답 : 분신한 사람이 언제 교내에 들어갔는지 알 수 가 없고, 유류품이 놓여 있을 때 보니 신나 2통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들고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부피이기

때문에 비닐종이에 싸가지고 온다면 알 수가 없고, 정 문이나 후문 이외에도 학교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더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이 학생들이나 외부 사람들에게 옥상출 입문을 열어준 것이 아닌가요.

답 :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문 : 옥상출입문을 분명히 잠근 것을 확인했나요.

답 : 열쇠로 잠그고 돌려서 밀어보았더니 안 열렸 습니다. 그 당시 분신건으로 시끄러울 때라 문을 잠그 고 제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문 : 참고로 이 사건에 대해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제 기억으로는 더 할 말이 없습니다.

문 : 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 : 예.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 한 대로 오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 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송 주 수

1991. 5. 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곽상도

검찰주사(보) 신광수

☐자료 가-1-18 (수사기록 136~145)

진술조서

①성명 정재오 (鄭在五)

②주민등록번호

③주거서울

④본적서울

⑤직업 서강대 수위 ⑥연령 56세 1936. 11. 5.생

피의사 김기설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 5. 9.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1. 저는 위 주거지에서 거주하고 현재 서강대학교 수위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 저는 주거지에서 처 박경순(56세, 주부), 장녀 정미경(32세, 출가), 정미숙(27세, 무직), 정미양(26세, 출가), 정미영(22세, 학생)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 고 막내 정태호(20세, 고3)가 있습니다.

1. 저는 1991. 5. 8. 08:07분경 서강대 본관에서 분 신한 김기설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물으신다면 사실 대로 답변하겠습니다.

이에 검사는 진술의 취지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임의 로 아래와 같이 문답하다.

문 : 진술인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요.

답 : 제가 1971. 6. 18. 서강대의 야간경비로 들어와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수위장, 또는 경비장이라는 직함으로 수위와 경비하는 사람들에 대 해 지휘, 감독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이 근무하는 서강대의 야간경비업무와 수위업무에 대해 진술하시오.

답 : 경비업무는(야간) 석산마스터라는 회사에 용역 을 의뢰하여 그 회사에서 책임지고 있는데 저는 보고 만 받고 있으며, 주간에는 주간근무자 3명 수위 6명 (정문, 후문 근무자)이 서강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 습니다. 주간근무자는 주간에 순찰을 돌고 차량을 정 비하는 등의 일을 하고 이 가운데 1명이 수위 가운데 비번의 자리를 메워주는 식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자는 아침 8시반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도 록 되어 있고 수위는 오전 6시에 출근하여 오후 2시 에 퇴근하는 사람 1명, 오전 8시반에 출근하여 오후 6 시에 퇴근하는 사람 1명, 오후 2시에 나와 저녁 10시 에 퇴근하는 사람 1명으로 되어 있고 야간 경비는 오후 5시에 구내에 들어와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근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은 어떻게 근무하는가요.

답 : 저는 아침 8시반까지 본관 수위실로 출근했다 가 9시까지 그곳에서 수위근무를 하였다가 부경비장 으로부터 야간경비상황을 보고 받고 이 내용을 아침 9시경 총무과에 보고를 하고 저는 본관 경비실에 있 는 제 책상에 앉아 일을 보게 됩니다.

문 : 진술인은 김기철이라는 사람을 아는가요.

답 :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만 91. 5. 8 아침 8시 10분경 서강대 본관에서 분신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위 김기철이 분신하게 된 경위를 아는 대로 진술하시오.

답 : 제가 91. 5. 8 아침 8시 10분경 최홍신이라고 정문 수위근무자로부터 사람이 본관 옥상에서 투신했다는 전화를 집에서 받고, 옷을 입은 다음 바로 학교로 나왔습니다. 제가 학교에 도착하여 보니(8시 20분경) 투신했다는 사람도 없고 하여 바로 본관 경비실로 들어가서 그곳 근무자(이름이 누군지 모르겠음)에게 "어디냐"고 했더니 본관옥상에서 했다고 하여 바로 본관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총장님이 올라오시는 것을 보고 같이 옥상으로 올라갔더니 옥상으로 통하는 철제유리문 양쪽이 다 열려져 있어 그 문을 통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옥상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로 총장님을 먼저 올려보내드리고 유리문의 상태를 점검한 다음(유리문이 열쇠를 잠근 상태로 열려져 있었음) 이어 제가 사다리를 타고 옥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위로 올라갔더니 4, 5명 가량의 학생과 야간경비대장 박흥기, 강당 경비근무자 곽태환 등이 유류품이 놓인 주위에 기웃기웃하며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총장님이 유서와 유류품(양복상위 한 벌, 안경 하나, 시계, 안주머니의 유서, 명함판 칼라사진 1매, 신나통 2개)을 확인하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있다가 총장님이 내려가신다고 했고 학생들도 내려가자고 하고 근무자 가운데 송주수에게 그곳을 지키라고 하고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제가 열쇠로 잠그고 내려와 부경비장과 함께 출입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기자들도 올라오고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홍보과나 총무과의 승인을 받아오라고 하면서 돌려보내고 총무과 직원에게 무전으로 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관리과장 등 관리과 직원들이 올라왔기에 문이 이렇게 열린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며 열리는 상태를 보여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일단 열고 "오도시"가 문을 닫을 때

잘못되어 뉘어 올라가는 바람에 문이 열리게 된 것 같다고 하면서 관리과 직원에게 왜 수리해주지 않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관리과 직원들이 다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 홍보과장과 기자 3, 4명이 함께 올라왔기에 총장님 지시라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하였더니 홍보과장이 기자들과 함께 도로 내려갔습니다. 그후 문을 기자들에게 열어주어도 좋다고 총무과 직원이 무전연락을 하기에 이때부터 기자들과 홍보과장에게 문을 열어주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6명 정도 올라가고 유류품 등을 살펴본 뒤 내려가는 것을 보는 저는 옥상 키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 마포서 형사들이 오는 것을 보고 또 문을 열어주고 옥상으로 형사2명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형사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내려간 다음 송주수 더러 제가 있던 위치에서 옥상키를 가지고 있다가 무전지시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고 저는 부경비장과 함께 옥상키로 문을 잠근 뒤 키를 송주수에게 넘겨준 다음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뒤 저는 본관 경비실로 내려와 있었는데 경비실 앞을 보니 투신한 지점을 나 이론근으로 빙 돌아가면서 줄을 쳐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리를 가보니 팻자국, 타다만 천 자국 등이 있었습니다.

문 : 그 뒤 어떻게 되었나요.

답 :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나 점심시간이 되어 12시경 서강대 바로 앞에 있는 제집으로 점심을 먹으러 갔다가 12시 50분경 학교로 돌아오니 총장님 기자회견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 그 곳으로 갔습니다. 회견장을 나와서 옥상을 쳐다보니 옥상에 사람들이 있어 이상하게 생각하고 경비실로 갔더니 근무자 송주수, 부경비장 장동체가 있어 옥상 문을 열어주었느냐고 하니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옥상키를 쟁겨들고 저, 송주수, 장동체가 함께(총무과 이 주임도 함께 갔음)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 키를 넣는 쪽문은 열려 있고 "오도시"가 걸려 있는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린 문을 살펴보니 아까와 마찬가지로 열쇠의 잠금장치가 빠져 나온 채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송주수에게 아까 내려올 때 문을 잠그지 않았느냐고 하니 잠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살펴보니 옥상 위쪽으로

가는 사다리가 없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보니 사다리가 위에 걸쳐져 있어 옆에 있는 작은 사다리를 이용해 사다리를 끌어내리고 올라가려고 보니 학생처장님, 검사님, 학생들이 함께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옥상 있는 쪽으로 내려와 학생들이 유류박스를 가지고 있었고, 그 박스를 학생들은 학생들이 가지고 가겠다고 하고 검사님들은 또 그대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고 있더니 함께 내려가는 것을 보고 다 내려간 것을 확인한 다음 옥상출입문을 잠그었습니다.

문 : 투신한 사람이 처음 있을 때와 학생들과 검사들이 함께 올라가 있을 때 옥상문을 누가 열어주었나요.

답 : 그것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경비실에 있는 키를 이용해 그 문을 연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 : 그 문의 잠금장치가 두번 다 빠져나온 상태로 열려 있었다고 하는데 분명히 확인하였나요.

답 : 제가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혼자 올라와 본 것이고, 두번째는 제 말고도 송주수, 총무과 이 주임이 함께 올라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문 : 그 상태로 문이 열릴 수가 있는가요.

답 : "오도시"가 오래된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문을 잠글 당시 살며시 닫으면 오도시가 튀지 않으나 덜컥 닫으면 오도시가 튀어 문이 열리는 위치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전에 관리과 직원들이 있는 데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문 : 만약 "오도시" 때문에 그 상태로 문이 열릴 수 있다면 "오도시"가 있는 쪽의 문도 열려 있어야 하는데 두번째는 오도시가 있는 문이 열려 있던가요.

답 : 제가 올라왔을 때 오도시가 어느 상태로 있는지 확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오도시"가 있는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 : 이 당시 학생들에게 어떻게 문을 열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나요.

답 : 제가 검사님들과 학생회 간부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간부학생 가운데 1명에게(부총학생회장인지 누군지 기억이 안남) "어떻게 문을 열었느냐"고 했더니 "발을 툭 차니까 열리네요"라고 했습니다.

"발로 차니까 열렸으니 들어왔죠"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문 : 발로 차서 닫힌 문이 열릴 수 있는가요.

답 : 그게 이상해서 오후 6시경 검사님들과 함께 옥상문이 있는 곳으로 와 닫힌 상태에 있는 이 문을 저도 전력을 다해 잡아당기기도 하고 밀어도 보았으나 열리지 않았고, 검찰청에서 나온 직원 1명도 전력을 기울였지만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심하게 밀어붙이는 바람에 창문에 붙이는 "빠대"가 많이 떨어졌는데 투신자와 학생들이 열었을 때는 이런 빠대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1명이 전력을 다하는 실험을 했던 것은 투신자가 혼자 올라왔을 경우 혼자만의 힘으로 닫힌 문을 열 수가(완력으로써)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문 : 학생들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다른 옥상키를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요.

답 : 어떻게 들어갔는지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데 다른 키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문 : 진술인이 "오도시"의 하자로 문이 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 91. 5. 8 18:00경 검찰에서 닫힌 문이 열릴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을 때는 왜 그런 사실을 전혀 말해 주지 않다가 이번에 사실을 진술하는가요.

답 : 학교측의 평가 잘못으로 인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되어 그랬던 것입니다.

문 : 학생들의(운동권) 속성으로 보아 테오 등을 할 때 학교측의 제지 등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측에서 옥상에 플랑카드 등을 걸지 못하게 하면 어떤 식으로 대처하던가요.

답 : 본관 옥상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으나 올라갈 수 있는 건물 옥상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문 : 유리 등을 깨면 쉽게 옥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없었나요.

답 : 없었습니다.

문 : 참고로 이 건에 대해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문 : 이상의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 : 예.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하다.

진술자 정재오

1991. 5. 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곽상도
검찰주사(보)신광수

☐자료 가-1-19 (수사기록 146~159)

진술조서

- ①성명 이창욱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거 서울
- ④본적 전남
- ⑤직업 경비원 ⑥연령 52세 1912. 12. 18생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 5. 9.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1. 본인은 위 거주지에서 거주하며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석산마스라기업주식회사 상호의 용역회사의 경비직으로서 서강대학교 경비업무를 맡아 일을 하고 있습니다.

1.제가 일을 하는 마포구 신수동 소재 서강대학교 본관 에이동 옥상에서 분신 투신자살을 한 김기철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물으시면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이때 위 진술을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 문답하다.

문 : 진술인은 언제부터 서강대학교에서 경비원으로 일을 하였는가요.

답 : 1990. 7. 2자로 용역회사인 석산마스라기업주식회사에 입사를 하여 서강대학교 경비업무를 현재까지 맡고 있습니다.

문 : 경비업무는 어떻게 하는가요.

답 : 주간경비는 서강대학교 소속 수위와 경비원이 하고 저의 용역직원들은 야간근무를 하는데 오후 5시에 경비실에서 업무 인수를 받아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합니다.

문 : 용역업체 경비원은 몇 명인가요.

답 : 4월 30일까지 13명이 근무를 하다가 5월 1일부터 2명이 증원되어 15명이 근무를 하는데 1명은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고정근무를 하고 나머지 14명이 격일로 약 10여개 건물에 분산 배치되어 일을 합니다.

문 : 진술인은 어떠한 건물의 경비를 하였는가요.

답 : 저는 그 동안 11개월 근무하면서 도서관, 엑스관, 성당 등의 건물을 경비하다 4월 10일부터 지금 근무하는 본관 에이관과 구름다리를 연결하는 씨관의 경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 : 본관 에이관과 씨관은 누가 사용하는가요.

답 : 본관 에이관은 총장, 부총장, 이사실, 총무과, 관리과 등 학교 집행기관이 들어 있고, 씨관은 씨클룸 등과 학보사 그리고 학생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학생식당 등이 있으며 본관지하에는 경비실, 기사실, 발전실 등이 있습니다.

문 : 경비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답 : 오후 5시에 업무를 인계받아 먼저 5시 20분경 건물의 외곽을 살펴보고 파손된 유리창 등이 없나 하고 점검을 한 다음 오후 6시에는 국기를 하강하고 건물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열려진 창문 등을 단속하여, 오후 7시경에는 건물 내외를 다니며 퇴근여부를 확인하여 출입문과 소등을 단속하고, 8시경에도 다시 건물 내외를 돌아다니며 확인 순찰을 하고, 9시 반경에 다시 순찰을 들고 10시에 마지막 순찰을 돈 다음, 모든 문을 잠그고 그 이후에는 2인 1조로 건물 외곽선을 한시간에 한번씩 돌며 아침 6시반까지 순찰을 한 다음 아침 7시 30분경에 전체 건물문을 전부 다시 열어 놓습니다. 그런 연후 순찰일지를 작성하고 건물 인근을 청소하고 다음 인계자에게 인수를 하고 퇴근을 합니다.

문 : 그러면 1시간에 한 번꼴로 순찰을 도는군요.

답 : 예, 그렇습니다.

문 : 순찰을 들 때마다 본관 4층에서 옥상으로 통

하는 출입문도 항상 점검하는가요.

답 :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오후 6시에 한번, 7시경에 한번, 9시 반경에 한번 해서 보통 세 차례 정도 점검을 하는데 출입문 문고리를 잡아 비틀어 슬쩍 밀어보아 열리지 않으면 잠긴 것으로 인정하는 정도로 확인합니다.

문 : 옥상으로 통하는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요.

답 : 하나는 경비실, 하나는 총무과에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경비실에 있는 열쇠는 복도 열쇠, 교수회의실 열쇠 등과 같이 묶여져 있으며 경비실 책상안에 넣어두고 사용합니다.

문 : 진술인은 위 옥상출입문 열쇠를 사용하여 본 사실이 있는가요.

답 : 교수회의실과 복도출입문은 열쇠를 사용하여 열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하지만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 열쇠는 한 번도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야간에 옥상으로 올라갈 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출입문을 직접 열은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문 : 진술인은 5월 7일 저녁부터 5월 8일 아침까지 본관 에이동과 옆 씨동건물의 야간경비를 선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평소와 마찬가지로 5월 7일 오후 5시 출근하여 부수위인 장동채씨로부터 "별일 없는데 씨동 학생 씨클룸을 잘 주시하라"는 말과 함께 경비업무를 인계받아 5시 20분경 외곽선 순찰을 시작으로 순찰을 돌았는데 밤 10시반경에 관리과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퇴근을 하며 제게 복도문을 잠그라고 하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잠갔는데 이웃 씨동은 각 씨클룸에 학생들이 약 150명이 웅성거리며 있어 제가 이들을 내보내려고 본관문을 다 잠근 다음 찾아가 문을 잠그려고 하니 총학생회 총무부장이라는 학생이 다가와 "허락을 받았으니 잠그지 말라"라고 하여 제가 "나는 그런 연락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며 잠그려고 하면서 그 학생과 실갱이를 하다가 같이 경비실로 와 학생과장 집으로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니 학생과장이 "강경대 사건도 있고 하여 그런 모양이니 10일까지는 문을 잠그지 말고 학생들이 있도록 협조하여 달라"라고 하여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문 : 그럼 씨동 씨클룸에서 밤을 새운 학생들이 전

부 몇명 정도였는가요.

답 : 확실한 숫자는 모르나 약 20-30여명 정도 밤을 새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은 5월 7일 저녁 때부터 8일 아침까지 몇 차례 옥상 출입문을 점검하였는지요.

답 : 오후 6시경, 7시경, 9시반경 하여 전부 세 차례 점검하였는데 문을 슬쩍 밀어보니 잠겨져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문 : 어떻게 밀어보았는가요.

답 : 평소하는 대로 문고리를 잡아 슬쩍 비틀고 살며시 밀어보니 열리지 않아 잠겨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문 : 경비근무를 하는 도중 외부사람들이 들어온 사실이 없는가요.

답 : 학생회 총무부장이라는 학생이 학생과장에게 전화를 하기 위해 저와 같이 경비실에 들어온 이외에는 외부사람이 들어온 사실이 없습니다.

문 : 진술인이 순찰을 돌기 위하여 경비실을 비울 때는 어떠 하는가요.

답 : 경비실은 저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7명의 경비원이 공동으로 사용하며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경비실을 비울 때는 없습니다.

문 : 진술인은 분신투신 자살한 사람을 목격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예.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문 : 그때가 언제인가요.

답 : 91년 5월 8일 오전 08시:10분경쯤으로 기억합니다.

문 : 그 경위를 진술하십시오.

답 : 오전 7시 30분경에 50분경까지 사이에 걸쳐 본관과 씨동 식당 라운지와 구체육관의 문을 전부 개방을 한 다음 경비실로 돌아와 난로에 기름을 넣고 마침 소변이 마려와 지하실 경비실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데 밖에서 "쩍"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동시에 "악" "하지마, 그러면 안돼" 등의 고함소리가 크게 들려 제가 놀래 황급히 소변을 보고 밖으로 뛰어나가보니 경비실 바로 앞에 남자가 온몸이 불길에 휩싸인 채 반듯이 누워 있었으며 경비대장인 박홍기씨, 부총장 운전기사인 정 기사, 그리고 학

생 2-3명이 달려들어 자기들 옷과 옆에 있는 프랭카드 등으로 불길을 잡으면서 제게 "물, 물" 하며 고탐을 쳐 저는 물을 뜨러 화장실로 다시 들어가 바게스에 물을 담은 순간 누군가 뒤에 "물을 하면 안되요"라고 하여 다시 밖으로 나가서보니 그때 불이 꺼져 있고 정 기사가 차를 밀고 나와 저도 다가가 정 기사, 박흥기씨 그리고 학생 2-3명과 같이 불에 타버린 사람을 뒤좌석에 들어 실어주고 차가 떠난 것을 멍하니 보는데 박흥기씨가 제게 "빨리 위에 올라가봐라"라고 하여 황급히 지하실 통로를 거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문 : 옥상에는 진술인 혼자 올라갔었는가요

답 : 예. 저 혼자 올라갔습니다.

문 : 옥상으로 올라가는 동안 만난 사람은 없었는가요

답 : 지하실을 거쳐 1층에 올라갈 때 복도를 걸어가는 사람을 한 사람인가 보았는데 계단을 올라가며 옥상까지 가는 동안 계단에서 내려오는 사람이나 2층 이상 복도를 다니는 사람은 본 기억이 없습니다.

문 : 계단을 올라가 옥상에 가니 상황이 어떠한가요

답 : 4층 계단을 올라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을 보니 한쪽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있었으며 출입문 빗장이 1개가 나와 있는 상태인 것을 언뜻 보았습니다. 저는 약 5미터 전방에서 옥상문이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다시 밀로 내려와 경비실에와 박 대장에게 "옥상문이 열려 있다"라고 말을 하고 바로 박 대장과 같이 다시 옥상으로 올라가는데 경비실에서 저의 주위에 있는 학생들이 두세명 저희들을 따라 같이 올라갔습니다.

문 : 처음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경비대장에게 보고하려고 내려올 때 옥상 쪽으로 올라오는 사람을 보았는가요

답 : 그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문 : 경비대장과 같이 옥상으로 올라올 때 따라온 학생들 중에 흰색계통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는가요

답 : 제 기억으로는 저희들을 따라온 학생 중에 흰색계통의 잠바인가 입은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 : 경비대장과 같이 옥상에 올라와 어떠한가요

답 : 옥상출입문에 들어서니 약 4-5미터 가량의 알미늄 사다리가 옥상 위로 걸쳐져 있어 서둘러 우왕좌왕하며 사다리를 타고 올라서 약 1미터 30여센타 가량의 지붕 턱을 타고 올라서 옥상에 도착하여 바라보니 끈색 신사복상의와 안경, 시계, 그리고 신나통이 2개 등의 유품이 있어 저와 경비대장이 이를 쳐다보고 같이 따라온 학생들이 달려들어 신사복 상의 등 유품들의 호주머니를 뒤지는데 좌측 상의에서 유서인 듯한 편지를 꺼내어 읽어보고 다시 주머니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는데 뒤를 보니 옥상으로 학생들이 계속 올라와 경비대장이 그들을 제지하라고 제게 말을 하여 바로 뒤이어 올라온 학교 경비원인 광태환씨와 같이 사다리를 지키며 더이상 학생들이 옥상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제지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학생들을 제지하며 약 10분간 지키고 있으려니 박흥 총장께서 교직원들과 같이 옥상으로 와 그분들을 올려보내고 저도 총장님 뒤를 따라 옥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총장님이 옥상에 가서 유품 등을 살핀 다음 "한 사람만 있고 다들 내려가라"라고 하여 경비원 송주수씨만 옥상에 남겨두고 나머지 학생들과 사람들은 전부 총장 뒤를 따라 옥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저는 다시 경비실로 내려와 앉아 있는데 박 대장이 다시 제게 옥상에 올라가보라고 하여 올라가보니 옥상 현관 앞에 수위장과 부수위장이 있어 같이 옥상을 지키며 어떻게 하여 옥상문을 열고 올라갔는가 하며 의문점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문 :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요

답 : 아무리 생각을 하여도 유리창을 깨지 않고 잠겨 있는 문을 열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열고 나갔는지 의아하게 생각이 들어 열쇠로 문을 잠그고 수차례 흔들어보니 처음에는 열리지 않았는데 왼쪽문 위쪽에 있는 빗장걸이를 약간 헐겁게 하고 다시 서너번 힘을 주어 흔들어보니 문이 열려 "아 이렇게 하여 열리지 않았다" 하고 의심을 하였습니다.

문 : 빗장걸이가 꼭 끼어 있는 상태에서도 열리던가요

답 : 아무리 힘을 주어 밀어도 열리지 않아 그 빗

장걸이를 약간 헐겁게 한 다음 문을 잠그고 다시 힘차게 반동을 주며 서너차례 밀으니 문이 열렸습니다.

문 : 문을 잠그면 빗장걸이가 보이던가요

답 : 안보입니다. 그러나 문 사이에 간격이 좀 벌어져 있어 그 사이로 빗장걸이가 좀 헐겁게 돼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 : 진술인은 1층 본관 현관문은 언제 잠갔는가요

답 : 평소 현관 사이드문은 오후 6시 현관문은 9시 반에 닫아 5월 7일 저녁에도 저녁 9시반에 닫아 걸고 10시반에 퇴근하는 교직원들은 지하실을 통하여 나가고 그들이 나가자 본관 복도 문을 잠그고 지하실을 통하여 씨동으로 가서 씨클룸을 닫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문 : 퇴근은 언제 하였는가요

답 : 저는 수위장과 부수위장과 같이 옥상 출입문을 확인하고 저는 경비실로 내려와 있으니 부수위장이 내려와 퇴근하자고 하여 업무인계를 하고 퇴근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이 경비대장인 박흥기씨와 같이 옥상에 올라갈 때 뒤따라 온 학생중에 학생회 간부들도 있었는가요

답 : 학생회의 간부는 평소 안면이 있어 알고 있었는데 불을 끌 때 학생회 총무부장이 달려들어 끈 것은 보았고 옥상에서는 학생회 간부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저의 뒤를 따라 학교 학보사라는 학생이 물려왔지만 저희들이 못 올라오게 제지하였는데 나중에는 막무가내로 올라와 제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동태만 살폈습니다.

문 : 진술인이 분신투신한 김기철이의 온몸의 불을 끄려고 달려갔을 때 주위에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가요

답 : 대여섯명이 김기철이에게 달려들어 불을 끄고 구름다리 위에는 처음에는 서너명의 학생이 소리를 지르자 순식간에 학생들이 뛰어와 금새 약20여명 정도 몰려들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 : 분신한 김기철이라는 사람을 전에도 본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저도 그의 이름이 김기철이라는 것은 옥상에 올라가 그의 끈색상의 위주머니에 쓰여진 이름을 보고 알았으며 그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릅니다.

문 : 차에 김기철이를 태울 때 그의 상태가 어떠한가요

답 : 저는 그의 발쪽을 잡아 차에 실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미 죽은 상태였습니다.

문 : 진술인이 경비실에서 나와 화장실에 들어가 소변을 볼 때 투신자가 떨어진 소리를 듣고 달려나가 불을 끄고 차에 실어 보낸 다음 옥상으로 뛰어올라간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요

답 : 아무리 서둘러도 최소한 15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 진술인이 옥상에 올라가 옥상출입문을 볼 때의 상황이 어떠한가요

답 : 왼쪽 문은 닫혀 있었고 오른쪽 문은 활짝 열려 있는 상태였으며 문 손잡이 빗장이 하나 빠져나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 5미터 정도의 거리에서 본 것이고 당시 경황이 없는 상태라 확실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오른쪽 문만 열려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문 : 위 옥상출입문을 마지막으로 잠근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가요

답 : 모릅니다. 저는 한번도 열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문 : 이상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 : 예. 사실입니다.

문 : 더 할 말이 없는가요

답 : 저는 그의 발쪽을 잡아 실었는데 제가 보기에 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문 : 이상 진술은 사실인가요

답 : 예. 사실입니다.

문 : 더 할 말이 없는가요

답 : 없습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증감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하다.

진술자 이창욱

1991. 5. 9.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경순

검찰주사(보) 임영근

자료 가-2-4 (동아일보, 91년 5월 9일)

第21467號 91.5.9. 동아 【第3種郵便物(가)】

분신행거는 10월 11일 발표...

순진·金基高씨 주변

순진(순진)은 분신행거에 대한 수사기관의 기초조사(신원파악, 사건현장 검증, 목격자 탐문, 분신행거 적건의 김 동지 행적 등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기초적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배후 조종세력이 있다는, 현장에서 분신에 사용된 라이타나 성냥이 발견되지 않았다느니, 서강대 교직원이라는 목격자에 의하면 분신을 도운 사람이 2-3명 있었다느니 하는 등의 날조내용을 언론을 통해 유폐시키기에 급급하는 태도를 보였다.

성실성인정 全民聯 실무책임 맡아 學歷위장... 분신행거는 논쟁 일의 켜

순진(순진)은 분신행거에 대한 수사기관의 기초조사(신원파악, 사건현장 검증, 목격자 탐문, 분신행거 적건의 김 동지 행적 등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기초적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배후 조종세력이 있다는, 현장에서 분신에 사용된 라이타나 성냥이 발견되지 않았다느니, 서강대 교직원이라는 목격자에 의하면 분신을 도운 사람이 2-3명 있었다느니 하는 등의 날조내용을 언론을 통해 유폐시키기에 급급하는 태도를 보였다.

순진(순진)은 분신행거에 대한 수사기관의 기초조사(신원파악, 사건현장 검증, 목격자 탐문, 분신행거 적건의 김 동지 행적 등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기초적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배후 조종세력이 있다는, 현장에서 분신에 사용된 라이타나 성냥이 발견되지 않았다느니, 서강대 교직원이라는 목격자에 의하면 분신을 도운 사람이 2-3명 있었다느니 하는 등의 날조내용을 언론을 통해 유폐시키기에 급급하는 태도를 보였다.

순진(순진)은 분신행거에 대한 수사기관의 기초조사(신원파악, 사건현장 검증, 목격자 탐문, 분신행거 적건의 김 동지 행적 등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기초적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배후 조종세력이 있다는, 현장에서 분신에 사용된 라이타나 성냥이 발견되지 않았다느니, 서강대 교직원이라는 목격자에 의하면 분신을 도운 사람이 2-3명 있었다느니 하는 등의 날조내용을 언론을 통해 유폐시키기에 급급하는 태도를 보였다.

순진(순진)은 분신행거에 대한 수사기관의 기초조사(신원파악, 사건현장 검증, 목격자 탐문, 분신행거 적건의 김 동지 행적 등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기초적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배후 조종세력이 있다는, 현장에서 분신에 사용된 라이타나 성냥이 발견되지 않았다느니, 서강대 교직원이라는 목격자에 의하면 분신을 도운 사람이 2-3명 있었다느니 하는 등의 날조내용을 언론을 통해 유폐시키기에 급급하는 태도를 보였다.

순진(순진)은 분신행거에 대한 수사기관의 기초조사(신원파악, 사건현장 검증, 목격자 탐문, 분신행거 적건의 김 동지 행적 등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기초적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배후 조종세력이 있다는, 현장에서 분신에 사용된 라이타나 성냥이 발견되지 않았다느니, 서강대 교직원이라는 목격자에 의하면 분신을 도운 사람이 2-3명 있었다느니 하는 등의 날조내용을 언론을 통해 유폐시키기에 급급하는 태도를 보였다.

순진(순진)은 분신행거에 대한 수사기관의 기초조사(신원파악, 사건현장 검증, 목격자 탐문, 분신행거 적건의 김 동지 행적 등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기초적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배후 조종세력이 있다는, 현장에서 분신에 사용된 라이타나 성냥이 발견되지 않았다느니, 서강대 교직원이라는 목격자에 의하면 분신을 도운 사람이 2-3명 있었다느니 하는 등의 날조내용을 언론을 통해 유폐시키기에 급급하는 태도를 보였다.

순진(순진)은 분신행거에 대한 수사기관의 기초조사(신원파악, 사건현장 검증, 목격자 탐문, 분신행거 적건의 김 동지 행적 등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기초적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배후 조종세력이 있다는, 현장에서 분신에 사용된 라이타나 성냥이 발견되지 않았다느니, 서강대 교직원이라는 목격자에 의하면 분신을 도운 사람이 2-3명 있었다느니 하는 등의 날조내용을 언론을 통해 유폐시키기에 급급하는 태도를 보였다.

자료 가-3-4

고 김기설 동지의 분신행거에 대한 정부 및 검찰의 왜곡날조 행각과 여론호도 책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폭력살인 통치의 앞잡이로 나선 지 오래인 검찰·경찰은 폭력살인을 규탄하는 국민의 정당한 항거를 호도하려는 목적 속에서 젊은이의 죽음을 왜곡하고 사태를 날조하면서, 사실을 수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론공작을 선도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구영 검찰총장이라는 자는 고 김기설 동지의 분신행거 사실에 대한 수사기관의 기초조사(신원파악, 사건현장 검증, 목격자 탐문, 분신행거 적건의 김 동지 행적 등등)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기초적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도 배후 조종세력이 있다는, 현장에서 분신에 사용된 라이타나 성냥이 발견되지 않았다느니, 서강대 교직원이라는 목격자에 의하면 분신을 도운 사람이 2-3명 있었다느니 하는 등의 날조내용을 언론을 통해 유폐시키기에 급급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법국민대책회의를 중심으로 김 동지의 분신행거를 막으려는 긴박한 노력이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되었음이 이미 밝혀졌고, 유품 조사에서는 분신에 사용된 라이타를 확인했다. 또 윤모 교수는 검찰의 이야기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 채 사건을 왜곡 날조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는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저항을 잠재우기 위하여 국민저항투쟁에 앞장선 법국민대책회의 및 전민련을 국민과 분리시켜 보고자 하는 현 정권의 저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역대 살인 사기정권은 국민 저항에 부딪쳐 정권유지가 어렵게 되면, 너무나도 상식적인 사실도 은폐 왜곡 날조하려는 광적인 태도를 보였다. 국민들은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다. 전두환 정권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쳐 정권유지가 어렵게 되자 박종철 열사를 고문살해하고도 이 사실을 숨기려 했으며,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도 "타' 치니 '악' 하고 쓰러졌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으로 사건의 진상을 왜곡 날조하려 했다는 것을. 또 권인숙 성고문 사건을 저질러놓고도, "성을 혁명의 도구화하는 좌경세력의 날조"라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려 하지 않았는가!

전두환 정권의 후예인 노태우 정권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마져 바친 젊은이의 숭고한 거사를 "분신을 혁명도구화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왜곡하려 하고 있다. 전두환 정권이 종말의 시점에서 저질렀던 상식 이하의 태도를 노태우 정권이 지금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딸을 기르고 있는 부모로서, 인간의 얼굴과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현 정권과 검찰은 사건의 날조 왜곡에 혈안이 된 지금의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사실을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며 이를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혀라.

이미 모든 사실을 낱알이 공개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관계 당사자들의 생생한 직접적 증언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밝힌 대책회의는 검찰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이에 적극 응할 것임을 밝힌다. 다만 밀실수사로 사건을 왜곡은폐하는 검찰·경찰의 속성이 천하에 명백히 드러난 상태이기 때문에 사건 왜곡은폐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즉 기자나 기타 명백한 증인들이 배석한 상태에서 협조할 것이다. 또 검찰측 증인과 대책회의측 증인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양측이 공개적 대결을 통해서 진실을 밝힐 것을 제의하는 바이다.

대책회의는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한다.
"살아서 투쟁하자: 인간을 위한 운동이 민주화운동인데 이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는 국민들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죽음만은 자제하자고 호소한다. 대책회의는 노정권 및 경찰·검찰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역사의 오명을 조금이라도 씻으려 한다면 민의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퇴진할 것이며 젊은이들의 죽음을 왜곡날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1991년 5월 9일

고 강경대열사 폭력살인 규탄 및 공안통치 종식을 위한 범국민대책회의

자료 가-3-5

분신을 선동하는 배후세력이 있다니요!!

박홍 총장님께 묻습니다

박홍 총장님!

5월 9일자 일간지를 뒤덮은 '분신선동 배후세력 철저조사' 기사에 유난히 박홍 총장님의 말씀이 눈에 띄어 저희를 당혹케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죽음을 선동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 우리는 이 세력의 실상을 반드시 폭로해야 한다."

박승희, 김영균, 천세용, 김기설 열사의 분신투쟁이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며 배후세력의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정구영 검찰총장의 발언과 견주어 조금도 손색없는(?) 박홍 총장님의 말씀에 우리는 망연자실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총장님!

분신을 선동하는 배후세력이 있다니요! '민중의 지팡이'라 지칭하는 공권력의 쇠파이프에 맞아 죽은 강경대 열사의 죽음은 최루탄과 화염병의 치열한 공방전에서가 아니라 독재와 민주간의 화해할 수 없는 투쟁의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노태우 정권 3년 반, 민자당 창당 1년간의 학정은 4천만 민중을 극심한 생활고와 공안탄압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으며, 우리에게 참혹하게 맞아죽은 어린 강경대 열사의 죽음을 안겨주었습니다. 하기에 우리는 '반드시 독재를 끝장내고 다시는 이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노라' 노태우 독재와의 일전을 결심하였습니다. 박승희, 김영균, 천세용, 김기설 열사는 꽃다운 청춘을 불살라 노태우, 민자당 독재에 대한 심판의 길에 하나같이 떨쳐일어나길 은뎀으로 호소하며, 노태우 독재를 끝장내는 투쟁의 도화선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87년 권인숙양을 성고문하고도, "운동권이 성을 혁명의 도구화하려 한다"고 발뺌하던 검찰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추악한 독재집단은 천주에 용납 못할 만행을 저지르면서도 이를 왜곡하며 오히려 탄압에 광분한다는 것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5·9 국민대회를 원천봉쇄하고 '헌하시국에 대한 강경대처'란 정부의 발표에 뒤이어 아나 다를까 '분신의 투쟁의 도구화'라는 논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성의 혁명도구화'에서 '분신의 투쟁도구화'로.....

총장님!

'민주총장님'으로 6천 서강의 사랑과 존경을 한몸에 받으시던 박홍 총장님께서 사건을 왜곡하며 탄압을 더욱 노골화하려는 독재집단의 더러운 꾀변을 뒷받침해주는 '분신선언 배후척결' 운운하는 발언을 보며 6천 서강은 실망스럽고, 부끄럽고, 원통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총장님!

살아남은 자로서 해야 할 일이 '배후세력 척결' 운운하는 열사를 욕되게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농민·학생의 피를 먹고 사는 노태우 독재를 끝장내고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에 총장님도 함께 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5월 9일 일간지에 실린 총장님의 발언에 대한 공개해명, 공개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91. 5. 9.

- 자주·민주·통일의 불바람 사학과 '단결' 사회부 -

◎ 91년 5월 10일 ◎

☐자료 가-1-20 (수사기록 166~173)

진술조서

- ①성명 장병호(蔣炳浩)
-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거서울
- ④본적서울
- ⑤직업상업(433-1870)성력기계
- ⑥연령세 1942.4.16.생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 5. 10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 1. 저는 위 주거지에서 성력기계라는 상호로 오판상을 하고 있습니다.
- 1. 저는 5월 8일 서강대학교에서 투신한 김기설의 매형인데 위 김기설에 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다하기에 출석하였습니다.
- 1. 김기설에 대하여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대하여 묻는다면 사실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 취지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문 문답을 하다.

문 : 김기설의 가족관계와 진술인의 관계를 상세히 말하여 주십시오.

답 : 김기설의 아버지는 김정열이고 어머니는 기설이가 어려서 사망하여 지금 있는 부인은 계모이며, 큰누나 김화자는 안양에서 살고 있고 큰 매형 김중서는 건재상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둘째누나 김학영은 성수동에서 편직공장을 하는 김서방과 살고 있고, 셋째 누나 화용은 상봉동에서 저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은 김기설이가 그동안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죽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 알고 있나요.

답 : 저는 김기설의 셋째 누나와 약 6년 전에 결혼하여서 그 전의 일은 잘 모르며, 제가 결혼한 직후 기

설이는 군에 갔다가 88년경에 제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대한 후에는 무엇을 하였는지 정확히 모르나 작년에는 성남에서 운동권 사람들과 같이 지냈었고 지금까지도 집에서 살지 않고 그런 계통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은 김기설이가 사망한 것을 언제 어떻게 알았나요.

답 : 저는 사업차 부산에 가 있던 중 5월 8일 밤 9시 뉴스를 듣고 알게 되었고, 5월 9일 새벽 비행기를 타고 올라와 10시경에 병원에 가서 김기설의 아버지 김정열을 만나 알게 되었습니다.

문 : 그러면 김기설이 어떻게 사망하였는지 알고 있나요.

답 : 서강대학교에서 신나를 뿌리고 건물 옥상에서 투신하여 사망하였다고 들었습니다.

문 : 그러면 진술인은 김기설이가 자살한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답 : 저는 기설이가 자기 뜻으로 자살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살이 자기 뜻에 의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피할 수 없게끔 죽음에 몰아넣었다고 생각합니다.

문 : 김기설은 5월 8일 아침 8시경 서강대학교 본관 옥상에서 분신자살하였다고 목격자들이 말하고 있는데 어째서 자살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요.

답 : 우선 작년에도 사고가 있었는데 작년 5월경에 기설이가 머리를 몹시 다쳐 성남 양친회병원에 응급 처치되어 있는 것을 제가 안양 중앙병원으로 옮겨 뇌수술을 하도록 해서 살려낸 적이 있는데 그때 기설이는 성남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 운동권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머리를 다쳐 양친회병원에 있을 때 저에게 말하기를 넘어져서 다쳤다고 거짓말을 하였지만 상처부위가 한군데가 아니고 얼굴, 뒷머리, 뒷머리 등이 다친 것으로 보아 누구에게 맞은 것이 틀림없었고,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김기설의 아버지에게 전해준 말에 의하면 어느 날 밤 김기설의 친구 3명이 병실에 찾아와 절대로 맞았다는 말을 하면 안되고 맞았다는 말을 하면 죽었다고 겁을

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때 제가 기설이에게 누구에게 맞았는지 고소를 하자고 하여도 거절하였고 말하지 않으면 수술비용을 대주지 않겠다고까지 하였는데도 말을 하지 못하였고 안양에서 수술을 받은 후에도 제가 진실을 말하라고 다그치고 운동권 사람들과 떠나서 저나 둘째 매형 회사에 다니라고 하였는데도 결국은 치료도 받지 않고 병원에서 도망쳐버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매우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둘째로 자기와 관계도 없는 서강대에 갔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 시각이 학생들이 별로 없는 오전 8시경에 분신하였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또 생각나는 것은 기설이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새엄마가 들어오자 정이 없었고 그래서 후에 학교도 큰누나 집에서 다니는 등 오히려 누나들에게 도움을 받고 정이 더 있으며, 군대가기 직전에는 자기 큰누나에게 1살된 조카를 잘 키우라며 육아법에 관한 책까지 선물을 한 사람인데 오히려 유서에는 별 정이 없을 어머니 이야기는 나오면서 왜 누나들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없으며 또 며칠전부터 죽을 마음을 가졌으면 누나들에게 전화 한통은 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화 한통 없었고 또 기설이가 큰누나에게 책을 선물하면서 써놓은 필적이 있기에 오늘 가져 왔는데 유서의 필적과 비교하면 전혀 글씨체가 달라 더욱 의심이 갑니다.

문 : 김기설이 작년에 성남에서 다녔을 때 어떤 사람들과 같이 생활을 했으며 누구에게 맞았다는 근거가 있는가요.

답 : 앞서 진술한 대로 인권운동을 하는 남자, 여자들과 성남의 어느 식당을 아지트로 지내고 있었고 누구에게 맞았는지 말 못하는 사정이나 친구가 찾아와 위협한 내용 등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기설이의 아버지가 그 식당을 정확히 알고 있고 어제 들으니 아버지가 그때 보았던 사람 2명이 5월 8일에 영안실에 찾아왔었다고 합니다.

문 : 진술인은 그러면 김기설이 같이 생활하던 운동권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였거나 자살을 강요당하였다고 생각하는가요.

답 : 위와 같은 이유로 저는 순수한 자살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그 이른 시각에 누가 끌고 가서 떠밀었는지도 알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진실을 철

저히 가리고 부검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 : 김기설의 아버지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가요.

답 : 아버지와 큰누나는 부검을 반대하고 빨리 장례를 치루기를 바라지만 전민련 사람들 때문에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으며, 저는 작년 성남사건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과는 말하기도 싫고 그들이 말을 걸어오면 "사람 죽인 놈들"이라며 욕을 하고 발길질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둘째 사위는 그들과 대화를 통하여 장례를 빨리 치루려 하지만 어제도 욕만 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은 유서와 기설이의 필적을 대조하여 보았나요.

답 : 유서 사본과 기설이가 큰누나에게 보낸 책에 써 있는 글씨를 보면 기설이의 글씨는 또박또박하고 잘 쓴 글씨는 아니나 유서의 글씨는 달필로 빨리 쓴 글씨이며, 언뜻 보기에 "ㄹ"자 같은 것은 아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문 : 그러면 조사해 참고할 수 있도록 진술인이 가져온 김기설의 글씨가 들어 있는 책표지 2장을 제출하겠는가요.

답 : 네, 제가 기설의 큰누나로부터 받아온 것인데 수사에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

문 : 참고로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저는 지금까지 진술한 대로 속 시원하게 의혹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부검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식을 잃은 김기설의 아버지가 경황이 없고 또 평소에 자기 주장을 내놓고 퍼지 않는 성격인데, 그 전민련 대책위 사람들이 검은 양복도 해주고 기설이를 영웅시하면서 행여나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화장실 갈 때나 식사하려 갈 때나 책임자가 정하여져 있어서 당번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실정이며 결국 그들에게 붙잡혀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둘째 사위나 큰누나 그리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중인데 그 사람들도 저와 같은 의혹을 가지고 있는 점은 같으나 부검을 하지 않고 빨리 장례치루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장례를 가족들 마음대로 빨리 치를 수도 없는 형편이므로 답답합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거나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장병호
1991. 5. 10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신상규
검찰주사(보) 신인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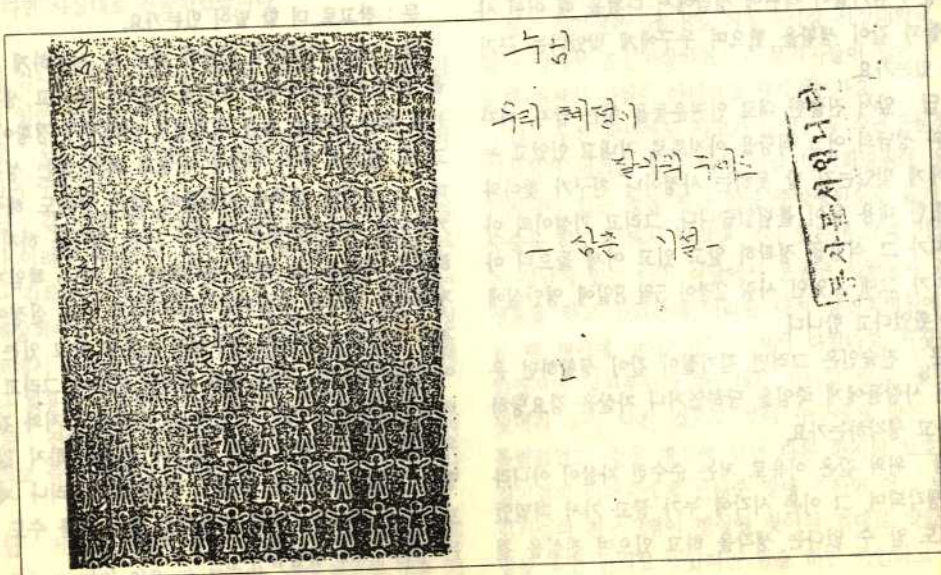
☐자료 가-1-21 (수사기록 174~176)

압수조서

변사자 김기설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검사 신상규는 검찰주사 신인섭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 경위와 같이 1991년 5월 10일 14시 분 서울지방검찰

압수 목록

증제번호	물건	수량	소지자 또는 제출자 주거·성명	소유자 주거·성명	비고
3-1	책표지(김기설의 필적)	2매	서울 중랑구· 장병호)	서울 (김화용)	



청 강력부 1020호 검사실에서 별지 목록의 물건을 압수하다.

1991. 5. 10.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신상규
검찰주사(보) 신인섭

압수 경위

참고인 장병호가 91. 5. 10. 14:00경 당청 1020호 검사실에 자진 출두하여 변사자 김기설의 사인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하면서 유서의 필적이 김기설의 필적인지 감정하는데 사용하도록 준비하여 왔다며 김기설이 군대 입대전 큰누나 김화자에게 선물한 육아범에 관한 책의 속표지에 쓰여 있는 김기설의 필적 2매를 임의 제출하므로 영장없이 압수하다(이 책은 그후 3-4년전에 큰누나 김화자가 장병호의 처인 자기 여동생 김화용에게 선물한 것임).

☐자료 가-1-22 (수사기록 177)

기안용지
(전화 : 530-4941)

분류기호 문서번호 강력23110-011963
시행일자 1991. 5. 10.
주입검사 신상규
수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참조 문서감정실장
발신명의 검사장
제목 필적 동일 여부 감정의뢰

당청에서 수사중인 변사자 김기설에 대한 변사사건에 필요하니 다음 2가지 필적 상호간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하여 당청 신상규 검사실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김기설 명의의 유서 2매.
2. 김기설의 필적 2매. 끝.

☐자료 가-1-23 (수사기록 178~190)

압수조서

피의자 김기설에 대한 투신변사 피의사건에 관하여 검사 박상도는 검찰주사(보) 신광수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 경위와 같이 1991. 5. 10. 13:30분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 2동 74-2호 변사자 자취방에서 별지 목록의 물건을 압수하다.

1991. 5. 10.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상도
검찰주사(보) 신광수

압수 경위

본건 압수물은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박형명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위 장소 집주인 강병숙이를 입회시키고 별지목록과 같이 압수한 것임.

압수 목록

증제번호	물건	수량
4-1	실천문학책	1권
2	토대상부구조론 입문	"
3	90년 민족민주운동의 평가와 91년 전망	"
4	복악대동놀이	"

분류기호 문서번호	강력 23110-011963	기안용지 (전화 : 530-4941)	시상 주명취급
보존기간	영구·중영구 10. 5. 3. 1.	검사장	
수신처 보존기간			
시행일자	1991. 5. 10.		
보좌 주입 판	주입검사: 신상규 부주입검사: 신인섭 주입검사: 신인섭	검조 기 관	문서 제 1991. 5. 10 총서 관
기안책임자	신상규	검조 기 관	발 주 인
경유 수신 참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문서감정실장	반 신 의	검 사 장
제목	필적 동일 여부 감정의뢰		1991. 5. 10 신상규
당청에서 수사중인 변사자 김기설에 대한 변사사건 수사에 필요하 니 다음 2가지 필적의 동일 여부를 감정하여 당청 신상규 검사실로 회보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김기설 명의의 유서 2매.			
2. 김기설의 필적 2매. 끝.			
1991-25(2-1) 11(1)2			

증제번호	물	권	수량
4-5	파업전야	1권	
6	91년 전국대의원대회 회의자료	"	
7	91년 임금인상투쟁 지침서	"	
8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	
9	가톨릭청년문화예술 합동단체의 나아갈 길	"	
10	가톨릭 청년운동과 신앙운동	"	
11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청년	"	
12	사회주의 배신인가 새로운 혁명인가	"	
13	항전별곡	"	
14	지역과 노동	"	
15	한국사회 통일전선 논쟁	"	
16	한국노동운동 20년의 결산과 전망	"	
17	노동법 해설	"	
18	제주민중항쟁	"	
19	80년대 민족·민주운동	"	
20	불세비키당과 그 조직	"	
21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자의 죽음	"	
22	전진하는 동지여	"	
23	상반기 민생투쟁 방향수집과 민중연대를 위한 토론회	"	
24	민주연합	"	
25	중국공산당사	"	
26	현실과 과학	"	
27	한국사회와 변혁이론 연구	"	
28	사상운동	"	
29	이야기 파라독스	"	
30	노동자의 철학	"	
31	현정세와 지방자치제	"	
32	벼는 결코 자기땅을 물려서지 않는다	"	
33	지자체와 민중의 진출	"	
34	사랑의 무기	"	
35	민족민주운동의 전진을 위하여	"	
36	무장봉기	"	
37	민주연합	"	

증제번호	물	권	수량
4-38	전태일		1권
39	선진 노동자의 이름으로	"	
40	혁명의 이론과 역사적 경험	"	
41	노동자의 당의 이론과 조직	"	
42	한국사회성격 논의의 재조명	"	
43	사회주의자의 실천 1	"	
44	고삐	"	
45	새벽	"	
46	정치경제학 교과서	"	
47	오늘 쏘바귀꽃으로 살아	"	
48	동향과 전망	"	
49	민주연합	"	
50	제국주의론	"	
51	80년대 후반 교육운동사	"	
52	자본축의 91년 입투 대책	"	
53	자료 모음 2	"	
54	지방자치제와 민중생활	"	
55	러시아 혁명에 있어 사회민주주의의 두 가지 전술	"	
56	민주연합	"	
57	95년을 통일의 원년으로	"	
58	마르크시즘과 민족해방운동	"	
59	페레스트로이카 논쟁	"	
60	우리 사랑이란 이름으로 만날때	"	
61	레닌과 러시아혁명	"	
62	프롤레타리아독재와 민중역합전력	"	
63	민족자본가 논쟁	"	
64	민자당의 내각제 파동과 야권 통합의 실패 그 의미와 대응	"	
65	민족자주화 운동론 2	"	
66	우리 함께 살자	"	
67	한국의 민주화와 선거문화	"	
68	민중문화와 민족현실	"	
69	전략과 전술	"	
70	역사적 유물론	"	
71	변증법적 유물론	"	
72	가슴으로 만난 평양	"	
73	돌담 너머 태양은 떠오르고	"	

증제번호	물	권	수량
4-74	사랑의 조건		1권
75	노동동맹과 농민문제	"	
76	현실과 과학	"	
77	새로운 상황 새로운 준비	"	
78	혁명이론 입문	"	
79	사업보고	"	
80	백두에서 한라까지	"	
81	민주화의 길	"	
82	사회주의 배신인가 새로운 혁명인가	"	
83	보고서	"	
84	사회주의 배신인가 새로운 혁명인가	"	
85	사회주의 배신인가 새로운 혁명인가	"	
86	민주연합	"	
87	창작과 비평	"	
88	일어사전	"	
89	영어사전	"	
90	노트(영어 정근택)	"	
91	결의문		41매
92	통일문화재 사업계획서		1부
93	범국민대회 실무회담을 위해 평양으로 출발하면서		
94	유인물 복사본		1권
95	남한경제사	"	
96	노동운동	"	
97	노동운동	"	
98	노트	"	
99	사노맹사건의 전모 복사본	"	
100	기자회견 자료	"	
101	원진레이온 직업병 참사의 의미	"	
102	전민련 신문		3부
103	범민족대회		1권
104	일간신문(한겨레,조선,중앙,동아)		8부
105	일간신문(한겨레,조선,중앙,동아)		4부
106	사진		23매
107	담배꽁초(번키스트 파인에플통속)		31개

증제번호	물	권	수량
4-108	담배꽁초(해태 빈우유팩 통속)		9개
109	카드		1매
110	국민종합통장(장준호)		1권
111	적색도장(박근대)		1개
112	녹음테이프(저 평등의 땅에)	"	
113	녹음테이프(송창식)	"	
114	녹음테이프(핀폴리오 리사이틀)	"	
115	녹음테이프(내용 불상)		2개
116	녹음테이프 집		1개
117	소형성냥(이태원 가든)	"	
118	소형성냥(브라질농부)	"	
119	육군 군복상의(장준호)		1점
120	육군 군복상의(장준용)	"	
121	육군 군복상의(김기설)	"	
122	신사복 상의(김문웅)	"	
123	곤색 추리닝 하의	"	
124	밤색 슬리퍼		2켤레

■자료 가-1-24 (수사기록 191~207)

실 황 조 서

김기설에 대한 서강대 구내 투신변사 사건에 대하여 1991. 5. 10. 13:30부터 15:30까지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 2동 74-2호의 강병숙(여) 가에 임하여 검사 박상도는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검찰주사보 신광수를 참여하게 하고 김기설의 노트 등 자필이 남아 있는 서류일체를 압수수색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실황을 조사한 바 다음과 같다.

1. 대 상

김기설이 자취하였다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 2동 74-2호의 3층방내의 물건들 중 김기설과 주변인물들의 신상파악에 도움이 되는 물건.

2. 목 적

김기설의 서강대 구내 투신변사사건에 대하여 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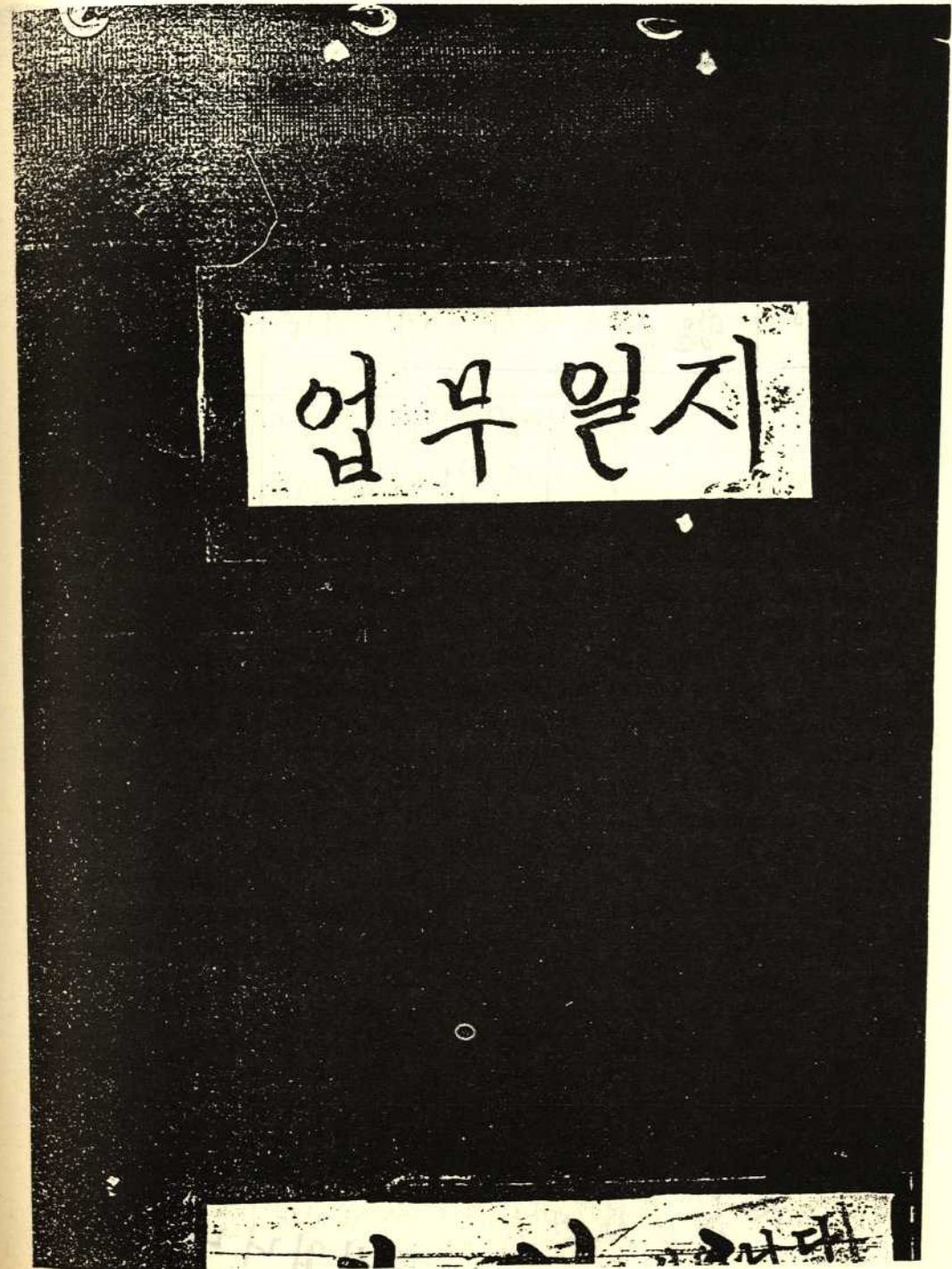
◎ 91년 5월 11일 ◎

▣자료 가-1-26 (수사기록 211)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사회국 업무일지 기입작업은 거의 전적으로 사회국 부장 김기설이 담당했으며 본인은 동 단체 인권위원장으로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1991년 5월 11일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인권위원장 서준식



- 사회국 업무 진행표 -

일시	사업 내용 (진행 사항)	비고
3/20 10:00 ~ 5:30	경수노련 관련 경기도령 항의 방문 및 대령본심 방문	

등사 문서입니다

- 사회국 업무 진행표 -

일시	사업 내용 (진행 사항)	비고
3/23	속주권유권문래 정연석 양사 부산 리서브 조사(시무자)	
3/20~4/1	속주 권유 권문래 정연석 양사 부산 지사내사단 조사 (대구, 지미리, 권연석 양사, 한기협, SCC)	
4/9	신진메이도 권영한씨 지사내사단 동생장 지리 방문	
4/6	속주 권유 권문래 정연석 양사 부산 내사내사단 기자리	
4/9	4위 권영한씨 기념비 준비	
4/14	신진메이도 권영한씨 장례내사단 기념비 준비	
4/14	기타 업무	등사 문서입니다

◎ 91년 5월 12일 ◎

☐자료 가-1-29 (수사기록 219~227)

진술조서

- ①성 명 강병숙(姜炳淑)
- ②주민등록번호 !
- ③주 거 서울
- ④본 적 경남
- ⑤직 업 새싹문방구 경영
- ⑥연 령 41세 1950. 4. 30.생

피의자 김기설에 대한 서강대 구내 투신변사사건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 5. 12. 서울 지방검찰청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1. 저는 위 주거지에서 약 2년 5개월 전부터 남편 허대두(47세)와 아들, 딸 등 5인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1. 저는 가정주부로서 집아래 주택가 도로변에 새싹문방구를 경영하면서 저희집 3층 옥상에 있는 방을 장준호 외 1명에게 세를 준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묻는 대로 진술하고자 합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의 취지를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 문답하다.

문 : 진술인이 강병숙인가요

답 : 네, 제가 강병숙입니다.

문 : 진술인은 언제부터 현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가요

답 : 딸아이 교육문제로 안양에서 살다가 1988. 11. 중순경 이사오게 되었습니다.

문 : 진술인의 집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 거주하고 있나요

답 : 1층에는 할머니와 막내아들 외손녀 등 3인이 한달 전부터 거주하고 있으며, 2층에는 흥광모씨 가족 5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3층 옥상에는 장광호 등 2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문 : 3층 옥상방은 언제 계약하였는가요

답 : 1991. 3. 23입니다. 여기 계약 당시 계약서 사본을 가져왔으니 수사에 필요하다면 이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인이 임의로 제출하는 서울 호의 3층 옥상방에 대한 월세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아 살펴본 후 본 조서 말미에 편철하다.

문 : 그 방을 계약하게 된 경위를 말하십시오

답 : 저희 집 3층방이 비어 있는 상태 하에서 저희 아이들이 밤늦게 공부하면서 무섭다고 하고 저도 귀가시간이 늦어 사람을 두려워 현대부동산에 여대생이나 참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1991. 3. 27. 오후 3시경 현대부동산 아저씨가 2사람의 남자를 제가 일하고 있는 새싹문방구로 데리고 와서 이 학생들은 연대생인데 연구실에서 원고도 쓰고 있으니 방을 주자 하여서 제가 학생들의 신분을 한번 확인하여 보자 하였더니 그 말을 들은 "학생들이 아주머니 저희들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십시오. 저희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여 신분을 대라 하였더니 현대부동산 아저씨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현대부동산에 가서 그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들어와서 그 사람들의 신원이 틀림없다고 하면서 저보고 전화를 하여 보라고 하였으나 그 당시 제 일이 바쁘기도 하고 방을 주니 안주니 하고 오랫동안 실갱이를 하다보니까 복덕방 아저씨도 미안하고 학생들에게도 미안하여 그럴 아저씨를 믿겠다고 하면서 저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을 끌어들이거나 시끄럽게 하면은 안된다고 하면서 저는 돈 보다는 아이들의 공부가 중요하니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학생들이 아주머니 그런 것은 저희들이 더 잘 알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라고 하여 다음날 계약서를 쓰고 이사를 오게 된 것입니다.

문 : 그날 계약 당시 누가 왔는지 알고 있는가요

답 : 처음에 복덕방 아저씨하고 왔을 때는 학생이라고 하면서 2사람이 왔는데 다음날 계약서를 쓰고 이삿짐을 가져올 때에는 혼자 왔습니다.

문 : 그 당시 출입한 사람들을 알 수 있나요
이때 검사는 압수된 증거 106호의 사진들을 보여준다.

답 : 그 사진들 중의 한 사람은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장준호라는 사람으로 저희집을 세를 든 사람입니다.

문 : 다른 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답 : 그 사람은 계약을 하러 복덕방 아저씨와 함께 와서 얼굴을 알고 있었지만 이름은 몰랐는데 1991. 5. 9. 형사라고 하면서 저의 집을 찾아와 신문에 나온 사진을 내놓으면서 이 사람을 알겠느냐 하여 그 사진을 들여다보니 저의 집에 계약을 하고 같이 거주하던 학생이라 하였더니 이 사람이 죽은 줄을 아느냐 하여 제가 깜짝 놀라 모른다 하였더니 이 사람이 김기설인데 서강대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라고 하여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문 : 장준호와 김기설이가 진술인의 집 3층 옥상방에 세들어 살고 난 후 찾아오는 사람은 많았는가요

답 : 이사를 오고난 후 처음에는 많았는데 그후에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 : 진술인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직접 보았는가요

답 : 저는 문방구 일이 바빠서 아침에는 07:00경 집을 나가서 문방구 일을 보고 저녁에는 23:00경 들어오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활을 모르지만 가끔 딸아이에게 물어보면 딸아이가 대답하기를 학생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으로 보아 학생이 틀림없다고 하며 찾아오는 사람들도 학생같다고 하여 저는 그 학생들을 조금씩 믿게 되었습니다.

문 : 진술인은 장준호와 김기설이 거주한 방에서 압수수색을 한 사실을 알고 있죠

답 : 네, 1991. 5. 10. 13:30경 서울 형사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저에게 제시하면서 저 입회하여 3층 옥상 방을 압수수색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문 : 이 영장이 그날 압수수색할 당시 진술인에게 제시한 영장인가요

이때 검사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박형명이 발부한 압수수색영장(6)을 보여준다.

6) 총자료집 I 책 42쪽 참조.

답 : 네, 그날 압수수색할 당시 저에게 제시한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문 : 진술인은 1991. 5. 7. 3층 옥상방에 누가 찾아왔는지 알고 있는가요

답 : 제가 직접 보지를 않아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부터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 :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가요

답 : 사람이 살고 있으면 대중 인적을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하여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되던가요

답 : 처음에는 신분관계로 따졌지만은 나중에는 돈이 없어 가난하게 공부하는 학생들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문 : 그 학생들이 언제쯤 집에 들어오는가요

답 : 저녁 11:30내지 12:00경으로 알고 있는데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마루에서 일을 하다보면은 3층 옥상으로 올라가는 발자욱 소리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의 집 대문은 어떻게 출입하는가요

답 : 대문 열쇠를 4개 만들어서 가구당 1개씩 주면은 집집마다 몇 개씩 만들어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층 학생들은 1개씩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학생들 방에도 열쇠를 1개 주었는가요

답 : 1개를 주었는데 학생들이 하나씩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장준호라는 학생이 이 사건 후 자취방을 찾아오거나 전화를 한 적은 없었나요

답 :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은 참고로 더 할 말이 있는가요

답 : 지금 와서 생각하니 저희 집이 비어 있는 시간이 많아서 만약에 나쁜 짓을 한다고 해도 눈치 챌 사람이 없어서 저의 집을 택하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사건으로 저의 가족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고 있으니 되도록이면 수사기관에서 저의 가

죽에게 피해가 오지 않도록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
다.

문 : 이상 진술한 내용이 사실인가요
답 : 네,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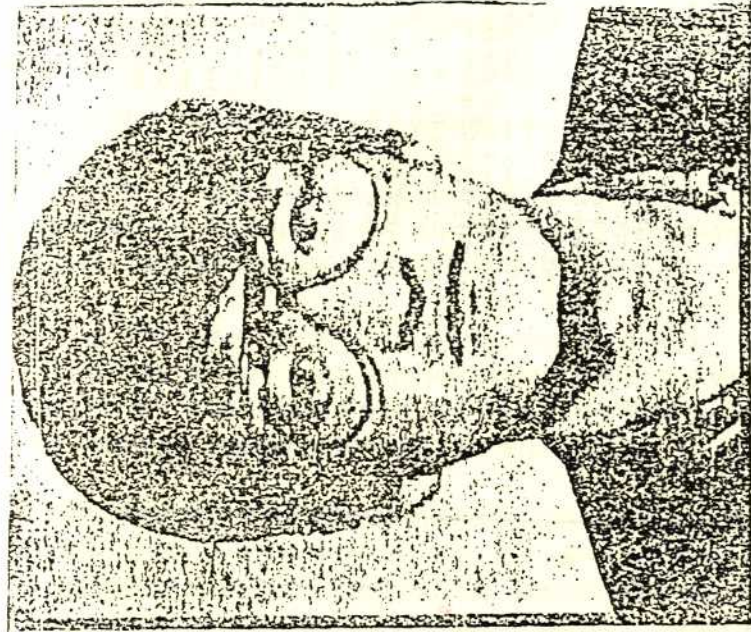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
한 대로 오거나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하다.

진술자 강 병 숙
1991. 5. 12.
서울 지방 검찰청
검 사 광 상 도
검찰주사(보) 신 광 수

*월세계약서 <생략> (수사기록 227)

자료 가-3-6

장례식 안내지



민주열사 고 김기철 열사 민주극단

영결식/1991년 5월 12일 정오, 서강대 청년회장
관양동전 11시, 서면한스병원 영안실 노복오후 1시 30분, 신문환타리
*전화번호 312-3111 또는 312-3112 (타리 오라코리)

민주열사 고 김기철 열사 민주극단

영결식/1991년 5월 12일 정오, 서강대 청년회장
관양동전 11시, 서면한스병원 영안실 노복오후 1시 30분, 신문환타리
*전화번호 312-3111 또는 312-3112 (타리 오라코리)

민주열사 고 김기철 열사 민주극단
영결식/1991년 5월 12일 정오, 서강대 청년회장
관양동전 11시, 서면한스병원 영안실 노복오후 1시 30분, 신문환타리
*전화번호 312-3111 또는 312-3112 (타리 오라코리)

민주열사 고 김기철 열사 민주극단
영결식/1991년 5월 12일 정오, 서강대 청년회장
관양동전 11시, 서면한스병원 영안실 노복오후 1시 30분, 신문환타리
*전화번호 312-3111 또는 312-3112 (타리 오라코리)

동지의 분신 항거에 대한 비보를 접한 전민련은 즉각 고 김기설동지 분신항거 대책위원회를 구성 하였습니다. 대책위는 김기설열사의 분신항거에 대한 노태우정권의 악의적 왜곡 선전에 대한 성명과 기자회견 등으로 대처하면서 5월 10일에는 명동성당에서 추모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대책위는 유가족과 협의하여 동지의 장례를 민주국민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하고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 동지의 마지막 가는 길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김기설동지의 육신을 차디찬 땅속에 묻지만 우리는 결코 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투쟁이 기어코 승리할 때 동지의 묘비 앞에서 비로소 목놓아 울면서 자주 민주 통일 승리의 깃발을 꽂을 것입니다.

살인정권 폭력정권 노태우정권 타도하자!

91년 5월 13일

☐자료 가-1-30 (수사기록 228)

기 안 용 지
(전화 530 - 4941)

분류기호 문서번호 강력23110-012032
시행일자 1991. 5. 13
주임검사 윤석만
수 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참 조 문서감정실장
발신명의 검사장
제 목 필적 동일 여부 감정의뢰

당청에서 수사중인 변사 자 김기설에 대한 변사사건에 필요하 니 다음 5가지 필적 상호간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하여 당청 신상규 검사실 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김기설 명의의 유서 2매.
2.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 2매.
3. 김기설의 무인이 찍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1매.
4. 전민련에서 제출한 업무일지 3매.
5. 김기설에게 증정된 책 표지의 필적 1매. 끝.

☐자료 가-1-31 (수사기록 229)

기 안 용 지
(전화 : 530-4945)

분류기호 문서번호 강력23110-012018
시행일자 1991. 5. 13
수 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참 조 일반화학과장

제 목 감정의뢰

당청에서 내사중인 사건과 관련 변사자 김기설의 자취방에서 수거한 별첨 증거물인 담배공초 를 송부하오니 감정하신 후 혈액형 및 그의 위 증거 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당청 강력부 파악도 검사실 로 조속히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담배공초 31개(원키스트 파인애플 통속 수거분)
2. 담배공초 9개(해태 빈 우유팩 통속 수거 분). 끝.

분류기호 문서번호	강력23110-012032 (전화 530-4941)	기 안 용 지	주임검사 윤석만
보존기간	영구·윤영구 10.5.3.1.	검 사 장	김 사 장
수신처 보존기간		검 정 기	1991. 5. 13 통제관
시행일자	1991. 5. 13.	주 임 검 사	윤 석 만
보 조 장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수 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
참 조 장	문서감정실장	참 조	문서감정실장
제 목	필적 동일 여부 감정의뢰	제 목	필적 동일 여부 감정의뢰
당청에서 수사중인 변사자 김기설의 대한 변사사건에 필요하			
니 다음 5가지 필적 상호간의 동일성 여부를 감정하여 당청 신상규 검사실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김기설 명의의 유서 2매.			
2. 김기설의 가족이 제출한 필적 2매			
3. 김기설의 무인이 찍힌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 1매			
4. 전민련에서 제출한 업무일지 3매			
5. 김기설에게 증정된 책 표지의 필적 1매. 끝.			

☐자료 가-1-32 (수사기록 230~239)

진술조서

- ①성명 이재구 (李在求)
-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거 서울
- ④본적 경기도
- ⑤직업 군인
- ⑥연령 20세 1970. 7. 21.생

피의자 이재구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1991. 5. 13. 수도권통합병원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다.

1. 저는 육군 제17사단 101연대 1대대 1중대 3소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90. 11. 15. 입대), 현재는 하악 전돌이라는 증세로 1991. 4. 2. 수도권통합병원 구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제 고종형인 김기설이 분신자살하였다는 이야기를 1991. 5. 12. 친할머니와 동생 이철구(중학교 3학년)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1. 저는 김기설과 다른 친척들보다 친하게 지내왔기 때문에 그 주변에 대하여 알고 있는 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이때 진술의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임의로 문답하다.

문 : 진술인과 김기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요.

답 : 김기설의 생모가 제 아버지 이규성의 누나로서 김기설은 제 고종형입니다.

문 : 진술인은 김기설의 필적을 알고 있나요.

답 : 예, 제가 기설이형과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형이 가끔 저희 집에 놀러오게 되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앉아서 낚서도 한 적이 있고 하여 그 필적을 제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문 : 이 공책을 알고 있나요.

이때 검사는 진술인의 본가에서 임의로 제출 받은 공책 1권을 제시하다.

답 : 1989. 2. 제가 서울에 있는 승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수하면서 신흥항공정비학원에 다니면서 수업 시간에 노트를 한 공책이고 그 공책에 기재되어 있는 필적은 모두 제 필적입니다.

문 : (이때 뒤에서 4번째 장을 제시하면서) 여기 적혀 있는 "김기설(한정덕) Tel.0342 45-5536" 등은 누구의 필적인가요.

답 : 그것은 제 필적이고, 그 위에 적혀 있는 막내 누나, 둘째누나, 큰누나 등의 전화번호도 모두 제가 직접 쓴 것입니다.

문 : 김기설의 이름 옆에 괄호 속에 한정덕이라고 기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이유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으나, 제가 신흥항공정비학원을 1989년도 초에 약 3개월 다녔고, 그 공책은 그 무렵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기설이형이 그 무렵 저희 집에 놀러왔을 때 요즈음 무얼하고 지내느냐고 하니 자세히 대답은 하지 않고 상남에 있는 출판사에 다닌다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기에 적어 놓은 것인데, 그곳으로 전화를 하여 김기설을 찾아도 없다고 하면 한정덕을 찾으라고 하기에 그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문 : 출판사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던가요.

답 : 책을 교정보는 일을 한다고 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화번호는 성남 민청련 사무실이었습니다.

문 : 위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보았나요.

답 : 1989. 가을경까지 도합 2-3번 정도 전화를 걸어 통화를 하면서, 저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의논을 하였습니다.

문 : 그 당시 김기설과 만나기도 하였나요.

답 : 1990. 5경 기설이형이 머리를 다쳐서 안양 중앙병원에 입원하였을 무렵까지는 형이 저희 집으로 가끔 찾아오는 것 외에는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문 : 머리는 왜 다쳤다고 하던가요.

답 : 당시 기설이형의 이야기로는 술먹고 어디에서 떨어져서 다쳤다고 하였으나, 가족 및 친지들은 모두 누구에겐가 맞아서 다친 것 같다고 하며,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다구쳤으나, 기설이형은 끝까지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저도 형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라고 하였지만 자세한 경위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당시 기설이형 눈 부분에도 멍이 들었고, 서울대학교 출신 운동권 학생들과 술을 함께 마셨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람들과 말다툼 끝에 싸우다가 맞아서 다친 것이 아닌가 하고 식구들이 추측하였습니다.

문 : 진술인이 김기설의 필적을 잘 안다고 하였는데 이 필적은 김기설의 필적으로 보이나요.

이때 검사는 김기설의 세제누나가 제출한 "좀더 멋있고 참한 현모양처가 되길", "누님 우리 혜정이 잘 키워 주세요"라는 내용의 메모지(4)와 1989. 10. 11. 안양시 호계 2동장 앞으로 제출한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서(5) 및 김기설 명의의 유서사본(6)을 진술인에게 각 제시한 바,

답 : 누나들 앞으로 보낸 메모지의 필적은 기설이형의 필적이 틀림없고, 분실신고서의 필적도 기설이형의 필적과 동일하고, 유서상의 필적은 아무리 보아도 기설이형의 필적 같지는 않습니다.

문 : 진술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 기설이형의 필적은 세로로 내려 그을 때 시작 부분에 꺾어서 쓰는 습관이 있고, 멧을 부리는 듯하게 흘림체를 잘 사용하는 습관이 있으며, 전체적으로 느끼는 인상이 기설이형의 평소 필적과 동일하다고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문 : 김기설과 가장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언제인가요.

답 : 기설이형이 병원에 입원하였을 무렵인 1990. 5경에 중앙병원에서 면회한 것이 마지막이었고, 그후에는 저희 부모님도 기설이형과의 만남을 은근히 꺼려하는 입장이고, 기설이형도 저에게 특별히 연락을 한 적이 없어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문 : 김기설이 운동권에 대하여 진술인에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나요.

답 : 다른 식구들에 대하여도 그렇고, 저에게도 운동권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고 운동권에서 함께 일하자고 권유한 적도 없습니다.

문 : 김기설과 평소 친하게 지내는 친구 중 아는 사람이 있나요.

답 : 고향 파주 친구인 성미상 대만이와 같은 고향친

구인 성명불상자 1명 등 2명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 : 위 사람들이 현재 어디에서 무얼하는지는 알고 있나요.

답 : 지금은 무얼 하는지 모르고, 대만이라는 친구는 당시 모대학을 다녔다고 하며, 어느 대학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문 : 김기설의 여자친구는 없었나요.

답 : 여자친구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했고, 제가 기설이형에게 "형도 나이도 들고 하였으니 장가도 가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여도 기설이형은 "여자가 어디 있냐?"라고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여자친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문 : 혹시 홍성은이라는 이름을 들어 보았나요.

답 : 듣지 못했습니다.

문 : 김기설의 필적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없나요.

답 : 제가 기설이형에게서 형의 군대시절 편지를 몇 통 받은 것은 있으나, 오래된 일이고 이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모두 없어졌고, 그후로는 제가 입대한 것도 기설이형이 모르기 때문에 편지를 받아본 적도 없고, 형과 함께 낚서한 종이는 그때그때 버렸기 때문에 하나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문 : 김기설이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어떠한 느낌이 들었나요.

답 : 허탈하고, 형이 참 바보같은 것을 하였다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문 : 이상의 진술이 사실인가요.

답 : 네, 모두 사실입니다.

위의 조서를 진술자에게 열람하게 하였던 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고 말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 무인케 하다.

진술자 이재구

1991. 5. 13

서울지방검찰청

김사 박경순

검찰주사(보) 김성수

4) 총자료집 I 책 74쪽 참조.

5) 총자료집 I 책 44쪽 참조.

6) 총자료집 I 책 27쪽 참조.

☐자료 가-1-33 (수사기록 240~243)

서울지방검찰청

수신 송명석 검사
제목 수사보고

아래와 같이 수사하였기 보고합니다.

1. 인적사항

본적 서울
주거 서울
여고 생물강사 홍성은(洪成銀)
만 24세 1966. 10. 25생(여)

2. 수사사항

명에 의하여 시내 성동구 화양동사무소에 임하여, 홍성은의 주민등록등제여부 확인한 바, 홍성은은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었으며, 주소지 확인한 바 홍성은은 위 주소지에 거주 있음을 수사보고합니다.

첨부: 홍성은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1991. 5. 13

압수 목록

증제 번호	물건	수량	소지자 또는 제출자 주거·성명	소유자 주거·성명	비고
6-1	정치위기의 본질과 민주세력의 과제	1권	홍성은()	좌동	

강력부 파견
경사 김재석

* 홍성은 주민등록표 <생략> (수사기록 241~243)

☐자료 가-1-34 (수사기록 244~245)

압수 조서

피의자 김기설에 대한 서강대 구내 투신편사 피의 사건에 관하여 검사 박상도는 검찰주사(보) 신헌수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 경위와 같이 1991. 5. 13. 20:30분 경 서울 시 홍성은 방에서 별지 목록의 물건을 압수하다.

1991. 5. 13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박상도
검찰주사(보) 신헌수

압수 경위

이건 참고인 홍성은이가 위 일시, 장소에서 참고인의 방에 있던 책이라고 하면서 임의제출하므로 범관의 영장없이 별지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하다.

☐자료 가-2-6 (동아, 91년 5월 13일)



지난 8일 분신자살한 전민선 사회부장 김기설씨의 안구행렬이 12일 오후 서강대에서 열릴식을 마친뒤 연도외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재장소인 新村로터리를 향하고 있다.

91.5.13. 동아 [21] 第 21471 號 ☆서사(報)版☆ [第

金基高씨 장례식

안구행렬이 12일 오후 서강대에서 열릴식을 마친뒤 연도외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재장소인 新村로터리를 향하고 있다.

차림총장의 「말씀」

안구행렬이 12일 오후 서강대에서 열릴식을 마친뒤 연도외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재장소인 新村로터리를 향하고 있다.

金基高씨 장례행렬 향의받고 피신

안구행렬이 12일 오후 서강대에서 열릴식을 마친뒤 연도외 수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재장소인 新村로터리를 향하고 있다.

문 : 서로 양쪽 부모님은 소개받았는가요.

답 : 그런 일은 없었고, 확실히 결정되면 인사를 하
자고 하였습니다.

문 : 김기설을 만난 사실을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
시오.

답 : 1991. 1. 20경 처음 소개를 받을 때 만났고
같은 해 2월 초순경에 "슈베르트"에서 둘이 만나 김
기설이 자신이 전민련에서 하는 일을 이야기하였으며,
같은 해 2. 16. 24:00경 화양동 저의 집 부근에 와서
술이 취해 저의 이름을 "홍성은씨, 홍성은씨!" 하고
소리치며 돌아다니며 제가 밖에 나가 술에 취해 그러면
어떻게 하나고 한 후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하고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 18경 "슈베르트"에서 만
나 밤에 남의 집 부근에 와서 소리를 치면 어떻게 하
냐고 하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후 1주일
에 1-2회씩 만나다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991.
3. 17경 춘천 청평사에 놀러 갔다왔고, 대학로의 학림
카페, 경희대 앞 학림카페에서 1-2회 만나고 1991. 3.
31. 11:00경 신촌 로타리 부근의 복지다방에서 만나
연대쪽으로 건다가 식사를 하고 헤어진 일이 있고, 또
몇 차례 만나다가 같은 해 4. 13. 12:00경 동문인 박심
성, 문형곤의 결혼식인데 몸이 아파 누워있는데 김기
설이 집 부근으로 찾아와 화양동 민중병원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4. 25. 21:00경 건대 전철역 부근의 카페 "카르멘"
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헤어진 일이 있고, 같은
해 4월 말 02:00경 김기설이 술에 취해 전화를 하여
민중병원 앞에서 김기설을 만났더니 일이 힘들다고
하소연하여 걸어다니다가 12:00경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일로 그 날밤 부친이 새벽에 나돌아다니는다고 몹시
추궁을 하여 김기설의 이름을 말하여 준 사실이 있습
니다.

문 : 그 당시 김기설의 이름만 말하여 주었는가요.

답 : 한대 철학과 4학년 김기설이라고 적어주었습
니다.

문 : 진술인이 알기에 김기설은 한양대 철학과 4
학년이 아닌지 않는가요.

답 : 당시 제가 알기로는 한양대 철학과 3학년을
중퇴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문 : 그렇다면 왜 부친에게 거짓말을 하였는가요.

답 : 당시 부친이 머리를 일부 가위로 자르고 분위
기가 전민련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 무슨 일
이 날 것처럼 험악하여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문 : 그 후에도 몇 차례나 만났는가요.

답 : 1991. 5. 2. 19:00경 서강대 부근의 아카데미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고 같은 해 5. 4. 12:30경
강경대사건 비상대책위원회가 있는 연대 학생회관 3
층으로 찾아가 김기설과 함께 학생식당에서 점심식사
를 하였습니다.

문 : 김기설과 만날 때에는 진술인은 어떻게 연락
을 하였는가요.

답 : 대개 김기설이 저에게 연락을 하였는데, 제가
연락을 할 때에는 종로에 있는 전련 사무실(전화: 743
-9127. 9128)로 연락을 하여 만났습니다.

문 : 위 사무실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았는가요.

답 : 1990. 11월경 건대부근의 카페에서 강기훈으로
부터 명함을 받았는데, 그 명함에 전민련의 전화번호
가 있고, 위 강기훈이 김기설을 소개할 때 같은 사무
실에서 일한다고 하여 알았습니다. 그리고 1991. 2.
16. 김기설이 술에 취해 동네에 찾아와 밤 늦게 제
이름을 불러대어 화가 나서 전민련 사무실로 전화하
여 그 다음날 통화한 후 만난 일이 있고 그후 2주일에
1-2회 위 사무실로 전화하여 김기설과 통화한 사
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언제쯤에는 위 사무실에 있다
고 김기설이 사무실로 전화해달라고 하여 통화한 사
실이 있습니다.

문 : 진술인이 최후로 김기설을 만난 때는 언제인
가요.

답 : 1991. 5. 7. 19:30분경 신촌에 있는 복지다방에
서 김기설을 만나 같은 날 22:30경 아현 전철역에 헤
어질 때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문 : 다른 사람도 있었는가요.

답 : 없었습니다.

문 : 그 경위를 진술하시오.

답 : 1991. 5. 6. 13:00경 김기설이 저의 집으로 전
화하여 저를 만나고 싶다고 하면서 "당분간 못 볼 것
같다"고 하여 제가 오늘 만나자고 하였더니 오늘은
시간이 없다고 하여 제가 내일 만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있을 테니 내일 전화하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 강의를 갔다가 돌아오
니 김기설이 18:50분경 전화를 하여 19:30경 신촌 복
지다방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이름을
모르는 카페에 들어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김기설이
"5.4 집회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이 어떠냐"고 물어 제
가 시청에서 모이기로 하였던 그 집회에 명동 부근에
서 호응을 하였기 때문에 당시 시민들의 반응을 보았
는데, 시민들이 둘러서서 박수를 치곤 하는 것을 보았
으므로 제가 "반응이 좋았다"고 하니 "이런 분위
기를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고 물어 제가 "잘 모르겠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다.
계속 유인물 배포하거나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방
법이 좋지 않겠냐"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김기설
이 "소수 말고 많은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였
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니 비가 조금씩 와 비를
맞으면서 아현역까지 와서 22:30분경 인사를 하고 헤
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집으로 바로 와서 세수하고
다음날 강의 준비를 하고 자려고 하였습니다.

문 : 김기설이 당분간 못 볼 것 같다고 하였을 때
어떤 생각을 하였는가요.

답 : 처음 들었을 때는 평소 노동현장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였으므로 서울을 떠나 취업을 하여 노동
운동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문 : 분신하려고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는가요.

답 :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문 : 진술인이 자필로 작성한 자술서에 의하면 김
기설이 위 전화를 하였을 때 "마지막 만남이 될 것
같았다"는 표현이 있는데, 그렇다면 죽으려 한다는 생
각을 느낀 것이 아닌지요.

답 : 나는 노동현장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들었으
므로 당분간 만나지 못할 것 같았을 뿐입니다. 그 당
분간이 언제인지 기약할 수 없으므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문 : 위 진술서에 따르면 그날 김기설이 "이상한
말들을 자꾸해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는 말이 있는
데 지금 김기설이 그날 했다는 말이 어떤 점에서 기
분이 안 좋을 정도로 이상한 말인가요.

답 : 평소와 달리 심각한 표정이고 연대에서 한창

강경대 비상대책위에서 일하던 중인데 떠날 것처럼
말을 해 이상한 말로 생각하였습니다.

문 : 김기설이 분신한 사실은 언제 알았는가요.

답 : 1991. 5. 8. 12:00경 연대 학생회관 3층에서 입
니다. 당시 친구 이영미, 김진수(대학 2년 선배, 사학
과 출신)가 있어 김기설이 어디에 있는냐고 물어보니
영안실에 있다고 하여 알았습니다.

문 : 그 경위를 진술하시오.

답 : 제가 1991. 5. 7. 22:00경 같은 김기설과 헤어
진 후 집으로 돌아와 잠을 자려고 하고 있는데, 24:00
경 같은 대학 도예과 출신인 친구 김문정(여, 24세 가
랑)에게서 전화가 와 만나자고 하여 집 근처의 민중
병원에 가니, 장준호, 김문정이 있어 함께 집으로 왔
습니다. 장준호가 저에게 김기설이 어디에 있는지 아
느냐고 물어 오늘 만났다가 헤어졌다고 하며 무슨 일
이냐고 되물으니 김기설이 요즘 행동이 이상한데 모
르느라고 하여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니 연대로 후배
가 찾아 와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혹시 모르느냐, 무
슨 일을 저지를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찾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리고 저는 잠을 자고 다음날 06:30경 일어나니 김기설
이 전화를 하여 "이대 쪽에 있다. 이때까지 다른 데에
있었다. 오늘 수업 잘해라. 열심히 살아라, 사랑한다"
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알고 찾고 있는
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제가 말하니 전화를 그냥 꺼
버렸습니다. 제가 급히 연대로 전화를 하니 아무도 전
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근 준비를 하고 나온
후 건대역에서 다시 전화를 하니 여자가 받아 얼마
후 임근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임근재가 같이 있다
가 새벽에 놓쳐버렸다고 하며 계속 찾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여 전화를 끊고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09:00경 전화를 하니 누군가가 상황이 안 좋으니 빨리
오라고 하여 수업을 마치고 연대로 가서 김기설이 죽
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문 : 진술인이 김기설과 헤어질 때 김기설의 복장
은 무엇이었나요.

답 : 끈색 양복 상의를 입고 구두를 신었던 것으
로 기억합니다.

문 : 그 당시 김기설이 담배불을 무엇으로 붙이던

가요

답 :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색깔은 모르겠습니다.

문 : 진술인은 1991. 5. 8 기자회견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1991. 5. 8 14:00경 내지 15:00경 연대 학생회관 3층에서 전민련 관계자 성명불상 1명과 제가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문 : 그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답 : 김기설과 전날 만난 일과 전화한 내용, 그리고 배후조정인 사람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여 없다고 하였습니다.

문 : 당시 김기설과 통화할 때 혼자 생각하고 결정했느냐고 물었더니 이제는 누가 조언해줄 상태도 아니고 혼자 결정한 것이라고 하더라고 했는가요

답 : 기억이 없습니다.

문 : 김기설이 진술인에게 편지나 기타 쪽지 등을 준적이 있는가요

답 : 저에게 1991. 2. 8 10:00경 슈베르트 카페에서 김기설로부터 받은 메모지가 있어 가져왔으니 제출하겠습니다.

문 : 위 메모지는 김기설이 쓰는 것을 진술인이 보았는가요

답 : 보지는 못하고 그날 김기설이 주어 받았습다.

문 : 무엇이라고 하면서 주었는가요

답 : "자기가 낙서한 것인데 잘된 것 같다. 읽어보라"면서 주어 받았습다.

문 : 언제쯤 쓴 것이라고 하던가요

답 : 그것은 말하지 않았으나 저에게 준 때쯤 쓴 것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다.

문 : 위 메모지는 어디에 보관하였는가요

답 : 제 방의 책상서랍에 보관하였습니다.

문 : 위 내용에 보면 초두봉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무슨 뜻인가요

답 : 잘 모르겠습니다.

문 : 위 메모지에 보면 "그때 나의 마음은 폐쇄와 좌절로 어둠과 연기로 자욱하여 그녀의 사려깊은 마음이 나에게 초두봉지를 선물하였다"는 말이 나오는데

데, 진술인이 김기설에게 선물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선물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 : 위 메모지의 내용에 의하면 엇저녁 소주 2잔에 나도너도 없는 상태에서 자네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네, 문제의식이 결여된 것이 아니냐고 무사안일한 자기의 삶과 소시민적인 사상적 사고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운운의 말이 나오는데 진술인이 김기설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

답 :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문 : 그렇다면 김기설과 소주를 마신 사실은 있는가요

답 : 소주를 마신 사실이 위 메모지를 받기 전후에 없습니다. 막걸리를 1-2회 위 메모지를 받은 후에 마신 일이 있을 뿐입니다.

문 : 그렇다면 위 메모지를 받은 기분은 어떠한가요

답 : 제가 받은 자리에서 읽어보지 않았고 나중에 읽어보았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문 : 위 메모지를 받은 후 그 내용을 김기설에게 물어본 사실이 있는가요

답 : 없습니다.

문 : 위 메모지는 내용이나 진술인이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위 메모지의 상대방이 진술인이 아니거나 메모지를 진술인에게 건네준 사람이 김기설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요

답 : 저는 기분이 나쁘으나, 제가 받은 것이고 김기설에게 받은 것이 맞습니다.

문 : 그렇다면 위 메모지를 보관하고 있다가 출석요구를 하자 가지고 온 이유를 무엇인가요, 찢어버려야 될 것이 아닌가요

답 : 제가 편지나 사진 등을 보관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문 : 당시 김기설이 주었다면 다른 여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과 술을 마신 내용이 든 메모지를 3번 정도 만난 진술인에게, 그것도 진지하게 교제 상대로 생각하고 나중에는 청혼까지 한 진술인에게 주어 기분을 상하게 할 이유가 있는가요

답 : 그런 이유는 없으나, 그냥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 김기설의 필적이 나오는 다른 자료는 없는가요

답 : 김기설이 1991. 3월경 준 것으로 기억되는 "조국은 하나"라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의 수첩이 있으니 제출하겠습니다.

문 : 위 수첩 중 어느 내용이 김기설의 필적인가요

답 : 수첩의 3월 3째주 난의 복지다방 약도와 맨 뒷 부분의 김기설 전화번호 "743-9127, 9128 에프742-8289"라는 기재가 김기설의 필적입니다.

문 : 위 약도와 전화번호는 김기설이 직접 적은 것인가요

답 : 약도는 김기설이 1991. 3월경 위 수첩을 저에게 주는데, 약속장소를 저의 집과 자신의 자취집인 모래내의 중간지점인 신촌으로 하자고 하며 신촌 복지다방을 아느냐고 하였다가 제가 모른다고 하자 버스 안에서 적어준 것이고, 전화번호는 1991. 4월경 어느 카페 안에서 적어준 것으로 모두 제 앞에서 직접 적은 것입니다.

문 : 위 전화번호는 어디인가요

답 : 전민련 사무실입니다.

문 : 왜 적어준 것인가요

답 : 연락처를 준다고 적어준 것입니다.

문 : 앞서 진술한 바에 의하면 전민련의 김기설 연락처는 진술인이 1991. 4월경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고 1991. 2. 18일에 진술인이 이미 이 전화번호로 김기설과 통화한 이래 수회 통화하여 김기설도 진술인이 위 전화번호를 알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요

답 : 예, 알고 있습니다.

문 : 그렇다면 김기설이 왜 그때 진술인에게 새삼스럽게 연락처를 알려주었는가요

답 : 장난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낙서를 한 것 같습니다.

문 : 아까는 김기설이 연락처를 주겠다고 하면서 기재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는가요

답 : 장난으로 수첩을 달라고 한 후 자신의 연락처를 기재한 것입니다.

문 : 진술인은 당시 김기설의 집이나 누나 등의 집 전화번호를 아는가요

답 : 모릅니다.

문 : 그렇다면 김기설로서는 진술인에게 위 집이나 누나집 등의 전화번호를 당시 기재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 : 자취집은 전화가 없고, 자기집은 잘 안 들어가니 연락이 잘 안되어 전민련의 전화번호를 또 기재한 것 같습니다.

문 : 진술인은 임근재를 아는가요

답 : 잘 알지 못하고, 김기설의 자취집에 같이 자취한다는 말을 들었고, 1991. 5. 8 비대위 사무실에서 처음 얼굴을 보았습니다.

문 : 진술인은 장준호를 아는가요

답 : 1991. 4. 5이나 6경 속초의 동우대 건으로 김기설이 도와달라고 하여 녹음한 것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달라는 취지라 제가 김기설의 자취집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임근제도 같이 생활한다고 들었습니다.

문 : 진술인은 임무영을 아는가요

답 : 잘 모릅니다.

문 : 김선택, 서준식을 아는가요

답 : 모두 1991. 5. 8 비상대책위 사무실에서 처음 본 사람들이고, 서준식은 전에 김기설이 속초 동우대 사건 당시 학내비리를 밝히려려고 함께 갔었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문 : 장준호를 찾아온 후배가 누구인지 아는가요

답 : 여자 후배가 찾아와 김기설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하였는다는데, 연대의 비상대책위 사무실에서 전날 만났다고 말하는 이지혜(방송통신대학 재학중, 22 내지 24세)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당시 김기설의 주민등록증을 분신하기 전에 받아가지고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문 : 진술인은 일기를 쓰는가요

답 : 날마다 쓰지는 않고 생각날 때마다 쓰는데, 1991. 1. 22. 이후에는 강사로 일하면서 일이 바빠 쓰지 않았습니다.

문 : 김기설이 머리를 다친 적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

답 : 1991. 3월말경인가 김기설이 전에 술에 취해서 문을 열려고 담을 넘다가 떨어져 머리를 다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머리를 툭툭 짝은 적이 있다는 이야기

정당한 삶이 사라지긴 기원하는데
 못에서 지옥스럽고 자주적인 존재로서의 나는 내 시간 하나
 갱신이다. 몸바람이 휘날리는 꽃송이는 대서문 은바람으로
 로 해로처럼 높이 날아가는 듯이 휘날린 것이다.

외국에서 살아가는 나에게는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애정을 표현해
 무제한의 사랑이 아니냐는 무사안일한 거리의 삶이
 이해하는 삶은 생각하면 것이 아니냐는 너무나 더욱 쉽게
 따스함으로 아니냐는 인연이기에
 이해하는 삶은 생각하면 것이 아니냐는 너무나 더욱 쉽게
 따스함으로 아니냐는 인연이기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264. 사물서랍너다

자료 가-1-37 (수사기록 267~269)

압수 조서

변사자 김기철에 대한 변사사건에 관하여
 검사 송명석은 검찰주사(보) 김성수를 참여하
 게 하고 아래 경위와 같이 91년 5월 13일 18시
 30분 서울지방검찰청 1014호 검사실에서 별지
 목록의 물건을 압수하다.

1991. 5. 13
 서울 지방 검찰 청
 검 사 송 명 석
 검찰주사(보) 김 성 수

압수 경 위
 참고인 홍성은이가 위 일시장소에 임의 출
 석하여 진술하던 중 동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
 이라고 하면서 제출하므로 법관의 영장없이 별
 지 압수목록을 작성하고 압수하다.

497670

091-13-09152-2(인력)

이-5001

김기철 74.9.29.2
 74.9.29.2

기라상무인사 75.7.70.7
 76.7.32.57

정기주인력
 인력관리

이동민력관

주장

압수 목록

증제 번호	물 건	수 량	소지자 또는 제출자 주거·성명	소유자 주거·성명	비고
7-1	조국은 하나	1권	홍성은	좌 동	
2	메모지	1장	"	"	

108 자료 가-1-39

▣자료 가-1-38 (수사기록 270~274)

서울 지방 검찰청

수신 검사 박경순
제목 수사 보고

명에 의거 강기훈의 필적을 압수하기 위하여 서울지검 북부지청 85형 제43084호 피고인 강기훈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기록을 북부지청으로부터 대출받아 왔기에 수사 보고 합니다.

1991. 5. 14
검찰주사보 임영근

▣자료 가-1-39 (수사기록 275~276)

압수 조서

변사자 김기철에 대한 변사사건에 관하여 검사 박

압수 목록

증제 번호	물 건	수 량	소지자 또는 제출자 주거·성명	소유자 주거·성명	비고
8-1	서울지검 북부지청 85형제 43084호 기록	1권	서울지검 북부지청 집행과 보존계	좌 동	

경순은 검찰주사(보) 임영근을 참여하게 하고 아래 경위와 같이 1991년 5월 14일 15시 00분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원 집행과 보존계에서 별지 목록의 물건을 압수하다.

1991. 5. 14
서울 지방 검찰청
검사 박경순
검찰주사(보) 임영근

압수 경위
강기훈에 대한 필적을 압수하기 위하여 위 일시·장소에서 보존담당자 검찰서기 유상기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 영장없이 이를 압수하다.

진술서

단국대학교 회학과 4

강기훈 (복합)

본인은 11월 17일 오후 10시경 사당동시장에 있는 전자오락실에서 학교친인 사학과 4년 전향자를 만나 2위 전향 학생 숙소인 계동동 2층 버스를 타러 피프 입구에 11시경 도착, 잠시 잔담을 나누다 12시경 잠듭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8일 6시경 일어나 세수를 하고 6시 30분경 아파트에서 나와 버스를 타러 헛나 여의치 만나 6시 45분경 택시를 타고 하라동 수산시장을 지나 연세대 입구에 7시 20분쯤 도착하여 도널드 65, 68, 69 공전에 7시 30분경 도착 거리를 조금 배회하다 40분쯤 휘배인 최영주를 중전리치에서 만났습니다. 최영주와 별안 없이 있다가 8시에

증서문서입니다

계

는 먼저 두층가의 남에서 나뉘고 곧바로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가 약 8시 20분쯤 되었습니다.
 올라가서 각 지역현까지 바로 데이트를 준비를 하
 주권은 대문자들이 선황하면서 1차시 시작 했
 습니다. (이때가 9시쯤 되었습니다.) 이후 시간이
 약간 지나서까지 4층에서 주권을 바치다 5층의 대문
 자가 2층에 내려가서 바니케이프를 치자고 제의
 (9시 30분쯤) 하여 20여명의 학생들이 내려갔고
 불은 그 이후 옥상에서 1층으로 떨어지다가
 10시쯤 2층으로 내려가 의자들은 운반하는 것은
 약간 되었습니다. 이때 (10시 30분 이후) 2층에서는
 대문자나 중앙정리 안수우남내의 대리가 왔었고
 불은 이층 구멍이었습니다. 대리가 경리라고
 기각들이 한다면 대문자위의 대리가 진행하는
 불은 10시 30 ~ 11시 사이. 불은 옥상에
 다시 올라갔고 이때 옥상에서는 화재현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지리가 11시 32... "

이동사문서입니다

되었습니다. 12시 30분 어찌 1시 사이 진압명령이
 언뜻그리고 진압한다는 것은 3층옥상에서 1층의
 불이론 보고 있는 어떤 학생이 알렸고 무렵
 이때 데이트를 준비하면서 양으로 찍힌 사물에
 대려 여기의 주시 했습니다. 1시경 옥상에 못이
 부러지지 시작하면서 잠시후인 1시 20분경 2층에서
 불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2층
 있던 모든 학생들이 3층 옥상의 합류를 했고
 3층 입구에 의자들의 짐꾸러미를 통해서 바
 비키게이트를 찾습니다. 잠시후 진압 경찰들이
 불을 부추기 시작하자 합류된 불은 3층 입구를
 막았고 불은 이층 합류 되었습니다. 수문쿠레
 불이 떨어지면서 진압 부대가 옥상으로 진입했고
 불은 옥상 옥상은 뒤신하여 합류된 불행이
 한 지가보여서 1층부터 위로 1층부터 3층에
 불이 주권을 바쳤습니다. 이틀반진 진압명령이
 11... 12... 13... "

동사문서입니다

23

장준호씨가 청년회에(어떠한 용무로 왔었는지는 모르지만) 와 있는 것을 보고 낯선 얼굴이었으므로 인사를 나누었는데, 그때 장준호씨가 우리 청년회 회원이 아니라 애국크리스찬청년연합 회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후에도 한번 정도 더 청년회에 온 것을 보고 인사하고, 안부를 묻는 이야기 몇 마디가 오고가고, 그때 본인이 어느 대학 무슨 과를 나왔는지 이야기했다. 현재 나이는 저와 동갑이고, 그 당시나 현재나, 다른 청년단체(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간부들이 간부들 간의 만남이나, 친분관계로 인해 가끔 가다가 나라사랑청년회에 들르는데 장준호씨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별 관계 없으므로 특별히 물어보지 않아서, 장준호씨에 대해서는 자세히 아는 바 없다. 그리고 장준호씨가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 아는 바 없다(그러나 홍성은은 알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1. 홍성은과의 관계

본인이 처음 홍성은을 알게 된 것은 87년 총여학생회선거 때 우연히 알게 되었는데, 그때 홍성은이가 총여학생회 부학생회장으로 당선되었으나, 집안이 엄격하여 활동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대학 졸업까지는 별 친분관계 없이 지냈으며 학교 내에서 보면 인사 정도만 나누는 관계였다. 대학 졸업 후에도 만난 적이 없으며, 홍성은이와 친한 친구인 이영미(본인과 중학교, 대학교 동창)로부터 가끔가다 소식이나 듣는 상태였다. 5월 7일 밤에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김기철씨가 홍성은 애인인지도 몰랐고, 현재 의정부에 있는 모여상 강사로 나가고 있다는 것도 몰랐으므로 전화번호를 알아둘 필요도 없는 관계였다. 그러나 본인이 홍성은이를 특별히 기억하는 것은, 본인과 중학교, 대학교 동창인 이영미를 통해서 좀더 기억할 수 있었고, 본인이 3학년 때 활동했던 놀이패서클클럽과, 총여학생회 사무실이 학생회관 3층에 같이 있었으므로, 얼굴을 자주 보고 인사할 수 있어서이다.

1. 1991년 5월 8일 새벽 장준호와 함께 홍성은을 만나게 된 경위
1991년 5월 7일 밤 11시에 아현동에 있는 로젠 호

프에서, 장준호를 만나고 한 이야기를 김기철이가 홍성은이 애인인데 요즘 행동이 이상해서, 오늘 꼭 홍성은이를 만나야 하는데 홍성은에게 연락할 길이 없어서 문정씨에게 연락한 것이라고 해서 본인이 본인과 홍성은이 어떻게 아는 사이라는 것을 알았느냐고 했더니, 자기가 김기철과 같이 자취를 하는데 홍성은이가 자취방으로 놀러왔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서로 인사하다가 홍성은이 단국대학교 나왔다고 하자, 장준호가 그럼 김문정을 아느냐고 하자, 홍성은이 대학동창이고, 지금은 나라사랑청년회에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자 장준호가 자기는 나라사랑청년회에 갔다가 인사해서 본인을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그래서 본인과 홍성은이 친분관계가 있는 것을 기억하고, 5월 7일 나라사랑청년회에 전화해서 본인을 만나러 온 것이다.

그래서 본인은 5월 7일 11시 장준호를 만나게 되었으며, 장준호는 본인에게 홍성은과 자신이 함께 자취하고 있는 김기철이가 애인 사이인데 요사이 김기철이가 행동이 이상해서, 걱정했는데 며칠 전부터 행방을 감추었다. 그래서 혹시 홍성은이는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홍성은이에게 연락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본인에게 전화하게 되었다고 했다. 그래서 본인이 김기철씨가 행동이 이상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했더니, 요사이 김기철씨가 굉장히 시국에 대해 걱정하고, 가슴 아파한다, 그리고 지나치리만큼 힘들어 하고 사소한 문제 갖고 사람들과 논쟁을 하곤 한다,고 했다. 그래서 본인이 요즘 시국에 대해 걱정 안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파면반응 아니냐?고 했더니 같은 방을 쓰고 매일 얼굴을 보면서 그런 것도 모르겠느냐? 그리고 장준호씨 자신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요즘 행동에 대해 여러 사람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때가 시간이 밤11시 40분쯤 되어서 일단 본인이 홍성은이에게 전화를 하기로 하고 친구 이영미에게 홍성은이 전화번호를 물어 홍성은에게 전화를 했더니 마침 홍성은이가 받아서 급한 일이니 지금 볼 수 없느냐고 했더니, 홍성은이가 무슨 일이냐고 해서 본인이 하여튼 급한 일이니 꼭 오늘 봐야 된다고 했더니 건대쪽에 있는 민중병원 앞에서 5월 8일 새벽 12시 20분에 보기로 약속을 정했다.

그리고 본인은 일단 연락을 해주었으니 장준호씨 혼자 가서 만나보라고 하고, 본인은 집에 빨리 가야겠다고 하였으나 장준호가 사실 홍성은을 본 적은 있으나 친한 사이는 아니니 함께 가서 만나달라고 부탁하였다. 본인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다, 김기철이라는 사람의 행동이 이상하다는데 어떻게 이상한 거고, 무슨 일을 친다는 것이냐고 물어보았더니 장준호가 혹시 김기철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본인이 김기철이 죽을 거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았더니 본인 입으로 그렇게 말한 적은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본인은 고민 끝에 장준호씨의 예감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하고, 요즘 시국이 뒤숭숭하니 김기철이라는 사람이 좀 힘들어 하는 것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 사람이 정말로 죽는다면 본인은 평생동안 죄책감에 시달릴 것 같아 함께 가 주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아현동에서 택시를 타고 가서 민중병원 앞에서 홍성은을 셋이서 만나게 되었다. 근처에 문을 연 곳이 없어서 홍성은이 집으로 가게 되었는데 홍성은이 이 밤중에 웬일이냐고 해서 그냥 갑자기 장준호씨를 만나게 되었는데, 너의 이야기가 나와서 장준호씨가 홍성은이에게 술이나 얻어먹자고 하여 같이왔다고 하자, 어이없어 하였다.

홍성은이 집에 도착하자 부모님도 주무시는지 기척이 없었고, 본인과 장준호는 홍성은이 방으로 들어갔다. 홍성은이 방으로 들어가니 장준호가 홍성은이 방 책장안에 작은 액자에 있는 증명사진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김기철이라고 하였다. 홍성은과 셋이 앉아서 홍성은이 나와 장준호에게 정말로 그냥 술 마시러 온 거냐, 솔직히 이야기해 보라고 하자, 장준호가 홍성은에게 기철이형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홍성은은 그럴 것 같았다, 이야기해 보자,고 하자 장준호가 오늘 기철이형을 보았느냐고 하자 홍성은이 방금 만나고 들어왔다고 하였다. 장준호가 기철이형 이상하지 않느냐고 하자, 홍성은이 울먹이면서 그 사람 일 칠 것 같다고 하였다. 그래서 장준호가 자세히 이야기해 달라고 하자, 홍성은이 아까 만났을 때 몹시 괴로워하면서 이런 혁명적인 상황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느냐고 하더라고 했다. 그러면서 홍성은이 장준호에게 기철이형이 준호씨에게 무슨 이야기 하더냐고 묻자 이

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요즘 행동이 이상하고 몹시 힘들어 하는 것이 필요 이상으로 지나쳐 보여서 주위 사람들이 걱정한다고 하였다. 그러자 홍성은이 그 사람 어찌면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내일 죽으면 가족들이나, 친한 사람들에게 연락해 달라고 하면서 수첩을 주었다고 했다. 그때 본인은 홍성은에게 나는 너를 이해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말리려 다닐 텐데 애인 사이라면서 어떻게 죽는다는 사람을 말리지 않을 수 있냐고 묻자, 홍성은이 왜 말리지 않았겠느냐, 아무리 말려도 듣지를 않더라, 도저히 누구 말도 듣지 않을 것 같은 아마살을 포기한 것 같은 사람처럼 보였다고 했다. 이때 장준호가, 그럼 기철이형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느냐고 묻자, 홍성은이 아마 자취방에 자취방에 갔을 거라고 했다. 그때 장준호가 그럼 됐다, 사람 한명이 기철이형 찾으러 가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평소에 기철이형이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묻자, 홍성은이가 기철이형이 평소에 서준식 선생(전 민권 인권위원장)하고, 진관스님을 잘 따르는 것 같다고 하였다. 장준호가 그럼 두분 중에 한분을 모시고 자취방으로 가서 기철이형을 설득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홍성은을 안심시킨 후 나와 장준호는 5. 8. 01:00경 홍성은이 집을 나와서, 본인은 장준호에게 빨리 가서 김기철씨를 꼭 설득하고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그후에 장준호는 연대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것은 장준호가 저에게 연대에 있는 서준식씨를 찾아서 김기철씨를 설득하러 간다고 하였으므로 연대로 간 것 같다.

1. 이영미, 이현우(본명 강기훈) 등과의 관계 및 그들의 현재 활동상황, 연락처, 연락방법 등.

이영미는 위에 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저와 중학교, 대학교 동창으로 친구 사이이며, 강기훈의 가명이 이현우인지는 몰랐으나 제가 아는 강기훈은 세종고등학교 3년 선배이자, 단국대학교 화학과 3년 선배인데 이영미와는 애인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강기훈과는 대학 3학년때 알게 되었는데, 단국대학교에서 세종고 동문회를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되었다. 그후로 몇번(3번 정도) 세종고 동문회에서 만났고 몇년 동안(87년

말 이후 90년 초) 못 보다가 이영미를 통해서 전민련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강기훈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한 번도 없고, 이영미와 함께 만난 적도 없다.

강기훈이 친구 이영미와 애인 사이라는 것은 친구 이영미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다. 이영미는 어디인지는 모르겠고 현재 속셈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 저와는 무학여중 동창관계이기 때문에 저의 작은 전화번호 수첩에 집 전화번호를 기록하였는데 지금 현재는 그 수첩이 없고 집에 있기 때문에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번호를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영미의 집도 잘 모르지만 재학 중일 때 영미가 구의전철역에서 항상 내렸기 때문에 구의동 근방인 것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지난 1991년 3월경 단국대 학생식당에서 단국대학교 민주동문회 총회가 열려 참석한 일이 있었는데 그 장소에 이영미가 나왔고 서로 말을 나누다가 이영미가 강기훈형과 애인 사이라는 말을 해주어 알게 되었는데 회원정족수가 되지 못해 총회는 무산되었고 다음 달인 4월에 개최되었습니다. 저로서는 강기훈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만나거나 연락한 일이 없어, 연락처 등을 알 수가 없고 세종고 동문이기 때문에 얼골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1. 나라사랑청년회를 현재 이끌어가는 회장은 누구이고 규모

1991년 5월 5일 김종철(29세, 기혼, 학원강사)이라는 사람이 신입회장에 선출되었고, 조직회원은 약 400명 가량인데, 작년 수해때 기부요금을 나가 약 200여만 정도를 모금하여 수재민에게 전달하는 등의 일을 하는 모임입니다. 대부분 직장인들이라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저녁에 모임을 가져 취미활동을 합니다.

1. 숨진 김기설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느끼는 심정.

얼굴 한 번 본적도 없는 김기설이라는 사람때문에 제가 이영미를 통하여 어렵게 홍성은에게 연락을 하였고 다시 함께 가달라고 부탁하는 장준호와 함께 홍성은을 만나 또다시 홍성은의 집에 까지 함께 갔기 때문에 김기설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하여 저로서는 어리둥절할 뿐 죽음에 이르지 못하도록 장준호, 홍성은이가 어떻게 해서든 이를 막지 못했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이상 모두 사실대로 진술하였습니다.

1991년 5월 14일

위 진술인 김 문 정

☐자료 가1-41 (수사기록 291~295)

서울 지방 검찰청

수신 검사 박경순

제 목 수사보고(강기훈 학적부 등 사본 입수보고)

명에 의하여 강기훈의 인적사항을 확인키 위하여 출신학교인 단국대학교에 임하여 학적부 사본 1매를 입수하고 주거지 동사무소에 임하여 세대별 및 개인별 주민등록표 각 1매를 입수하여 이를 첨부 보고합니다.

1991. 5. 14

검찰주사보 임 영 근

첨부 : 학적부 사본 1부

세대별 주민등록표 사본 1부

개인별 주민등록표 사본 1부. 끝.

*첨부 자료 전부 <생략> (수사기록 292~295)

(수사기록 296~301)

*한양대생 김기설의 진술서와 학생증 사본 <생략>.

☐자료 가1-42 (수사기록 302~324)

자술서

본 적 서울

주 소 상 동

성 명 박 경 민 (朴 敬 敏)

주민등록번호

직 업 회사원(덕신종합건설 기술부 전기과)

1. 89년 12월 17일 공군병장 만기 전역후 복학준비중이었고, 다음 해 90년 2월 대유공업전문대학 전자통신과 2학년 복학하였습니다.

1. 2월 말 대유공전 총학생회 학예부장을, 교지편집을 위해 총학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1. 2월 말(아마도 가장 춥고 눈 많이 온 날 기억) 점심을 먹기 위해 총학실로 들어가서 난로가 옆에 앉아 몸을 녹히는 "좀 마르고, 안경진, 근색 양복에 넥타이를 매지 않고, 랜드로바 비슷한 신발을 신은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1. 2월 중순부터 시작된 학내 등록금 동결문제로 학교가 어수선한 상태였습니다.

1. 점심을 먹기 위해 도시락을 난로가에 올려 놓은 후 곧바로 학생회장(정동원, 공업디자인과 63년생, 해병대 출신)이 나와 난로가 옆에 앉아 있는 분을 소개 해주었습니다.

1. 이름은 "한정덕" 나이는 64년생, 한양대 철학과 중퇴(3년), 민청년 소속으로 소개했습니다.

1. 등록금 인상문제로 매주 2-3회 내외로 총학실을 방문했습니다. 총학간부들에게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와 학교측의 비합리성(등록금 대폭 인상의 문제) 자주 이야기해 주고 다른 중요한 사항은 학생회장에게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 총무부장(송한철)과 자주 싸우곤 했습니다(우리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투로).

1. 3월 중순쯤 등록금 동결이 무산되고 학생회장, 부회장은 심한 자책감에 빠지고 성남 근처(경원대) 주점에서 총학 간부 모두가 술을 했습니다.

1. 모두들 등록금 동결 무산 원인에 대해 얘기했고, 총무부장이 술에 만취 내게 너무 잘난 척한다며 그만식으로 할려면 총학일 때러치라고 폭언했습니다.

1. 자신도 화를 참지 못하고 11시(저녁)경 자리를 박차고 나와 "학생회 일을 그만두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 바로 그날 총학생회장과 부회장은 술을 과음하고 급기야 도끼를 들고 다니며 학교 본관 유리창을 다 부수고 대의원실, 학회장실 집기를 다 부수었습니다.

1. 이후로 4월 말까지 학생회장, 부회장은 기물파손죄로 입건되고 난 총학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1. 5월쯤에 학생회장, 부회장이 재판으로 기소유예로 풀려나고 5월 중순경 한정덕씨가 교통사고 난 소식을 학생회장에게 들었습니다. 같이 가자고 했으나 수업과 집안 일로 피했습니다. 교통사고 장소가 천안 방면으로 기억됩니다. 머리를 다쳐 정신이 혼수상태라고 들었습니다.

1. 그 이후 그 형을 본 기억은 가끔 6월까지 집회 중에 가끔 보았습니다.

1. 2학기 때는 공부에 충실해서 성적장학금을 받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으며, 12월초 동양정밀 opc공채 26기로 시험과 입사했습니다.

1. 12월까지 연수기간이 끝나고 계열회사인 동양시스템산업(주)(오에스아이)에 발령받아 오에이 자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2학기 들어와 입사까지 3월말까지 한정덕씨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1. 직장을 다니며 야간대학을 다니려고 밤에는 공부를 했고 2월말 서울산업대에 편입낙방, 2월말 광운대 편입에 실패 3월초 한국방송통신대 경제학과로 편입, 그래도 조금은 대학에 대한 관심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1. 3월 초 편입후 학내 노래모임인 "소리새벽" 4기로 들어갔습니다. 노래를 상당히 좋아해 같이 노래하며 공연도 하고 싶어 열심히 일해 볼 생각이었습니다.

1. 신입회원과 선배들간의 잦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1. 선배들이 거의 여자라 참으로 거부감도 많았고 작년에 공연 못한 이유에 우리 신입회원들 상당히 불만이 있고, 선배들이 체계적인 생각없이 앞뒤 분간없이 말하는 모습들이 웬지 답답했습니다.

1. 그러한 선배속에 4기 신입회원들은 소리새벽을 하나둘씩 그만둔다는 말을 했습니다.

1. 4기끼리 모여 소리새벽 발전을 위해 4기들이 단합하자고들 많은 다짐을 하며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1. 신입회원 중에 마음에 맞는 6명이 모여 소모임

을 추진해 보았습니다(신기환, 문윤희, 박경민, 송국영, 김용희, 이지혜).

1. 모두들 선배를 제쳐두고 우리끼리라도 가끔 모여 Study Group형식의 모임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시험 때는 시험공부 등 형식은 많이 부쳐 모임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1. 하지만 우리들 중에 마땅한 leader가 없다는 판단으로 6명 중 주위에 아는 선배나 필요한 사람물색을 고민했습니다.

1. 특별한 사람이 없다 문득 작년에 헤어졌던 한정덕씨가 생각났습니다.

1. 6명에게 내게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고 다음 날이 분을 수소문해 보았습니다.

1. 예전 민청련 전화번호가 남아 있어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1. 민청련 있는 분이 "노동자의 집"으로 전화를 해보라고 해서 다시 전화를 해보니 전민련으로 전화를 해보니 한정덕씨란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1. 다시금 노동자의 집으로 전화하니 "김기설"이란 이름을 알려주어 곧바로 전민련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1. 다음날 아침 전화를 하라고 하며 전화는 간단히 끝냈고 난 드디어 찾아냈다고 기뻐했습니다.

1. 다음날 아침 회사에서(앞에서 설명을 못했습니다. OCI를 3월까지 다니고 봉급이 적어 신설동 소재인 덕진종합건설 기술부로 이직했습니다) 전민련으로 전화를 하고 드디어 김기설을 찾아내었습니다.

1. 다음날 한정덕 씨를 만나 회사 옆 미네르바 restaurant에서 Coffee를 마셨습니다.

1. 그때까지도 자기 본명을 한정덕이라고 속였으며 기설이 가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1. 좀 바쁘다고 하며 원진레이온 문제로 대책위의 활동, 승의여전에서 몇명의 여학생과 서클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1. 내게 아르바이트가 없다고 물어보며 요즘 돈벌이가 없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1. 내가 그 형에게 전민련서는 봉급 안 주냐고 해서 "아! 5만원 준다! 치사해서 말이야!"

1. 마지막 말로 그 형에게 우리 소모임 이야기를 해주고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1. 꽤히 승낙을 얻고 자리를 일어서며 다음 만날 약속을 하며 헤어졌습니다. 11시에(오전) 만나 11시 30분경 헤어져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1. 다음주 月요일 전화가 와서 만날 약속을 했습니다. 신촌 사거리에서 무슨 서점 옆에 무슨 다방(기억이 안남)이라고 하며 퇴근 후 7:30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송국영과 신기환에게 연락, 그 장소에 나가 있으라고 했으며 나는 빨리 나가본다고 했습니다. 그날 난 퇴근이 어려워(10시쯤 퇴근) 그날 약속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송국영과 신기환이는 그런 사람을 보았다고 했습니다(Memo지 보고 더 확실히 알았다고 함).

1. 그 다음날 내가 미안해서 전민련 사무실에 전화하니 없다고 하며 "원진레이온"에 있다고 전화 답변을 받고 다음날 전화통화가 이루어져 일주일 후 다시금 전체가 모이도록 했습니다.

1. 소모임 회원 5명과 김기설씨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대학로 앞의 켄터키 프라이드치킨에서 7:30에 만나기로 했으나 기설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5명은 화가 나서 위쪽 호프집으로 가서 술을 마시다가 8:30에 기설형이 부리나케 달려와 미안하다며 "원진레이온" 일로 바빠서 그랬다며 핑계를 대었습니다.

1. 우리 5명과 기설형은 자리를 옮겨 다방으로(기억 안남) 옮겨가 서로 인사결 만나 얘기했습니다.

1. 그날 기설형은 "웬 여자가 이리도 맑느냐"며 좋아했고 "이중에 내 신부감이 있을 것 같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1. 10시쯤(저녁)에 여자들은 집으로 보내고 기설형과 나와 들어서 호프집에 가서 3차를 했습니다. 그날은 내가 술에 너무 취해(card로 술을 먹어 마음껏 먹음) 그냥 계속 즐기만 하다 기설형이 집에 가자고 하여 기설형은 택시 타고 집으로 가고 나 역시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습니다.

1. 그리고 다방에서 5.5일 만나자고 했으며 그날 모임 때는 자기 소개 준비를 해오라고 했습니다.

1. 이때까지가 4月末 정도의 만남이고 5.5일 일요일 아침 10시에 다시금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1. 제가 집에서 일찍 나와 학교 계시관 앞에서 기다렸으며 10:20경에 기설형이 왔습니다. 동아리 방안

으로 안내하고 아직 아무도 오질 않았으니 기다리라고 한 후 나머지 5명을 기다렸습니다.

1. 20분 간격으로 하나 둘씩 왔으며 11시 넘어 자기 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1. 6명의 소개가 끝나고 기설형이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1. 5,000원을 주며 막걸리를 사오라고 했으며 막걸리가 들어와 마시며 얘기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막걸리를 5병에 과자를 사왔습니다.

1. 자신은 한대 철학과 3년 중퇴이고 지금은 전민련 사회국 사회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집안 사정 얘기와 (누나, -직업, 아버지, 새어머니 이야기를 했다.)

1. 술이 얼큰하게 취하자 자신은 80년도 중순에 당사(무슨 당?) 점거에 선배들과 얼떨결에 들어가 고생하고 불참해 18개월의 감방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1. 이때부터 기설형은 술에 많이 취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고 술이 계속 오고가기 시작했습니다.

1. 4시경 2차를 가자고 했으나 극구 말리며 내일 서로들 출근 때문에 말리려 했으나 10,000원을 더 주며 술을 사오라고 했습니다. 4시에 연대 대책회의실에 약속이 있다고 했으면서 왜 약속을 어기며 안 가냐고 하자 "여기가 더 좋다"며 안 갈려고 했습니다.

1. 10,000원으로 막걸리 6병과 과자를 더 사오고 본격적으로 더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1. 나머지 5,000원을 기설형에게 주고 같이 계속 술을 마시며 서로 개인 얘기하며(따로따로 갈라져 얘기함) 시간을 보냈습니다.

1. 6시경 3차를 가자며 기설형이 일으켜 세웠습니다. 기설형은 이때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1. 대학로 골목으로 들어와 유정식당을 찾았고 밥(저녁밥) 먹고 헤어지려 했습니다.

1. 식당에 들어서자 자리를(방) 잡고 김치찌개 2, 소주 2병을 시켰고 곧바로 기설형은 쓰러져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1. 주인 아줌마가 화를 내며 "무슨 선술집에서 잠을 자냐! 손님 떨어진다"며 일으켜 세우도록 했으나 우리가 "밥이 나오면 깨울 테니 걱정 말라고 했다"

1. 밥이 나오자 기설형이 벌떡 일어나 "무슨 밥이냐!"며 밥을 2공기씩 비우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1. 또 따로따로 얘기가 되고 기설형이 약간 화가 난 듯 또 3차 가자고 했다. 그래서 "기설형 이게 3차여!"하며 웃었습니다.

1. 9시 넘어 유정식당을 나와 문윤희는 집에 가고(성남이라서) 나머지(김용희는 2시경 집으로 갑교회?) 4명과 기설형이 함께 그앞 전통찻집에 들어가 술 먹을 사람은 술 먹고 차 마실 사람은 차 마시자고 했다.

1. 신기환과 나는 맥주 1병과 번데기를 시키고 술을 마셨고 기설형은 조금씩 맥주를 들이키고 다시금 한병을 더 시켜 술을 마셨다.

1. 이때도 얘기들이 자기 얘기만 하고 얘기들이 분분하여 기설형이 못마땅한 듯 이야기를 집중하라고 했다. 기설형은 술에 취해 황설수설 자기 가정얘기와 계속 여자얘기를 하자 나와 신기환이는 지겨운 듯 자리를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1. 10시경 모두 자리를 파하고 밖으로 나와 각자 집으로 향하여 했습니다. 신기환이가 먼저 간다며 사라지고 나는 택시를 타고 기설, 지혜, 국영이가 대학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10:30경 출발 집에 11:30경 귀가했습니다.

1. 다음날 5.6일 아침 9시 이지혜에게 전화 하니(회사) 출근 안했다고 했습니다.

1. 그래서 또 애내들이 술마시다가 어디 쓰러진 게 아닌가 하고 걱정했습니다.

1. 저녁 6시경 회사 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으니 송국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1. 이지혜와 같이 있으니 좀 보자는 식이었습니다.

1. 그래서 오늘 바쁘니 전화로 얘기하면 안돼냐고 하니 "앞으로 기설이형 못보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갑작스럽게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1. "무슨 소리냐, 자세히 얘기해 보라"고 하자 "전화로 도저히 말을 못하겠으니 만나자"며 말을 끊으려 했습니다.

1. "급한 일이나"고 되묻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1. 그래서 내가 바쁘니 회사 앞으로 약도를 말해주고 오라고 했습니다.

1. 7:30에 약속을 하고 엘리베이터로 그 시간에 나가 보니 지혜가 보이고 송국영이는 화장실에 있는 것

을 확인, 지혜에게 저 앞 호프집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1. 다시 나는 사무실로 올라와 책상을 정리하고 짐을 챙겨 호프집으로 갔습니다.

1. 들은 청하에 노가리 안주를 시켜 놓고 반 병을 비워두었습니다.

1. "무슨 일이냐! 어제 어디 또 갔었냐!" 하고 묻자 "여관에서 기설형하고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막걸리 6병(?) 정도를 사가지고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1. "장소가 어디냐" "전민련 지부쪽에 백제장여관"이라고 했습니다.

1. 기설형이 울면서 자신들에게 분신계획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1. 5. 8일이 계획일이며 죽으면 화장해서 어느 장소에다가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1. 자신이 죽으면 주위 사람들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1. 내 생각에는 50:50으로 생각했으며 50은 형이 자신이 하는 일이 많아 결코 그럴 리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50은 요즘 분신으로 인해 또 자신이 분신하여 운동에 불을 붙이지 않으려는 생각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1. 다음날 아침 9:00에 송국영이는 곧바로 여관에 나와 출근했다고 했으며 12:00까지는 지혜와 기설형과 같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1. 12:00에 나와(지혜가 한 말) 기설형과 비를 맞으며 걸었다고 했습니다.

1. 걸으면서 기설형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명함 하나를 찢어버리며 "이제 정리해야겠다"며 말을 했습니다.

1. 둘 중에 한 사람(?)이 은행에서 20,000을 인출하여(지혜가 한 말) 즉석 1분 사진을 찍고 1장을 지혜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기설형에게 양말을 사주었다고 했습니다.

1. 주민등록증을 버리려 하자 지혜가 자기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설형이 지혜에게 주민등록증을 주었다고 합니다.

1. 더불어 기설형이 가지고 있던 전민련 통장을 찢어버렸답니다(지혜에게 보여주고).

1. 그리고 지혜에게 집앞까지 바라다주었다고 얘기 듣고 오후에 약속이 있다며 헤어졌다고 합니다.

1. 지혜는 술이 깬 기설형에게 어제 한 말 진짜냐고 되묻자 "그렇다"고 했습니다.

1. 이상으로 제가 자세히 물어본 기설과 지혜, 국영의 대화내용이었습니다.

1. 일단 지혜가 자꾸 울고해서 택시 태워보내고 10:00경(저녁) 국영과 다시 술을 마시며 정리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1. 맥주를 마시며 내 생각을 얘기했습니다. "결코 그럴 리 없고 그렇게 죽을 사람은 아니다" "많은 일 벌려 놓고 어찌 그냥 훌쩍 떠날 수 있느냐" "지금 생각하니 20:80정도이다" "20은 혹시고 80은 그럴 리 없다는 확신이었다."

1. 11:30경 국영에게도 걱정하지 말라고 했고 내가 최대한 힘써 보겠다고 말하고는 보냈습니다.

1. 다음날 5. 7일 저녁 집으로 귀가해(일찍 나옴) 20:00경 먼저 전민련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연대 대책위"에 갔다고 했으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대책위로 전화해 "오늘 기설형이 들어왔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1. 주위 사람들 얘기소리가 들렸고 어떤 분이 6시 경에(저녁) 들렀다고 했습니다.

1. 전화통화자(여자)는 저에게 6시에 들렀다고 했으며 나는 황급히 "기설씨가 분신할 계획인 것 같다. 빨리 선배 아는 분 있으면 찾아봐 달라"고 얘기했습니다.

1. 대책위 쪽에서는 당황해 하며 "정말이냐"며 되묻고는 급히 전화를 끊고 말았습니다.

1. 다시금 전민련 쪽에 전화를 해서 마찬가지로 전화로 알려주었습니다. 역시 상대방은 놀라하며 전화하신 분이 누구냐고 하길래 "학교 후배"라고만 밝혔다.

1.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게 최선의 방법뿐이고 사람들이 잘 처리해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1. 일단 나도 잠을 청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음 아침을 맞이 했습니다.

1. 출근하여 아침 9:15분경 대책위로 전화를 다시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7시경 분신했습니다" 순간 얘기를 듣고 앞의 캄캄해지고 정신이 없었다.

1. 곧바로 지혜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실을 알리자 지혜는 곧바로 울음을 터트렸다.

1. 다시 국영에게 전화를 주고 역시 울음을 터트리 고 말했다.

1. 자세한 상황을 알리고 대책위에 다시 전화를 할려고 했고 전화내용은 "운명했다"고 침뚫한 표정으로 일관지어버렸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혹시 집회 때 분신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어찌 새벽에 분신 했더니 이해가 안간다고 했다.

1. 장소는 서강대로 얘기해 주고는 그 사람 역시 울먹이면서 전화를 끊고 말아 더이상 알아볼 수가 없었다.

1. 11시경(오전) 회사에서 "선배형이 다쳐 병원에 간다"며 나와 곧바로 Taxi 타고 연대로 향했다.

1. 대책위를 물어 들어가니 "누구냐"고 하길래 어 제 제보한 사람이라고 했다.

1. 황급히 잘 왔다며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곳에는 벌써 지혜, 국영이가 울면서 앉아 있었다.

1. 전민련 사람들은 우리들을 앉혀 놓고 오전에 방송에 배후세력(분신)이 있다는 보도가 있자, 전민련쪽에서는 당황해하며 잘못하면 우리 전민련이 다칠 것 같으며 우리들 3명에게 기설과 있었던 얘기를 해달라고 했다.

1. 사실대로 있었던대로 얘기해주고는 12시경에 기자회견이 있으니 좀 도와달라고 청했다.

1. 우리 3명은 생각을 했고 괜히 우리까지 피해볼 것 같은 생각을 했다.

1. 너무 간곡한 부탁을 해와 할 수 없이 기자회견을 같이 하고 말했다.

1. 역시 기자회견때도 일요일, 월요일, 제보 상황까지 기자에게 설명해주었다.

1. 3시 넘어(3시 30분쯤) 전민련에 어느 분이 우리에게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사주고 고마워하며 헤어졌다.

1. 그때 기자회견 중에 "김용희"는 라디오 보도를 듣고 혹시 나라고 생각하여 전화해서 왔다고 했다.

1. 다음날 난 계속 출근을 했고 지혜, 국영은 계속 다음날부터 영안실에서 일을 도와 주었다고 했다.

1. 이틀에 한번씩 저녁에 퇴근 후 영안실에 나도

찾아갔고 참으로 기설형 사진을 보며 답답하기만 했다. "바보 같은 형"이라고.

1. 5월 12일 장례식 일자를 듣고(일요일) 난 회사 출근으로 힘들 것 같다고 했다. 계속 APT 공사 후 입주로 기술부(회사) 직원이 계속 청소를 해서 매일 내려갔다(경기도 오남리 진주APT).

1. 청소 때문에 5/12에도 내려갈려고 하는 모양이었다.

1. 나는 일요일 오후 내내 너무 피곤해 잠만 자고 장례식에는 참석 못해 참으로 기설이형에게 미안했다.

1. 장례식 후 5월 13일(어제) 지혜에게 전화해서 술 먹자고 했다. 7:30분에 만나서(종로)에서 만나 술을 먹었다(음식점). "지혜는 아직 나이가 어리니, 이번 충격을 잊고 너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된다. 이제 지혜 자신을 정리하고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니 잊어버리고 집과 직장에 충실하라"고 했습니다.

1. 지혜는 또 울기 시작했습니다.

1. 나도 방송대 그만두고 다 정리하고 이제 내 일에 충실하려고 생각하니 지혜 역시 그랬으면 좋겠다고 지혜에게 다독겨려 주었다.

1. 지혜가 계속 울며 술을 마시고 취하자, 11시경 나와 술을 깨울려고 주스를 사마시고 집이 어디냐고 물어봐 "마포 가드호텔 앞"을 알고 Taxi로 집에 보내주고(새벽 1시) 새벽 1시경 곧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1시 30분 정도였고 어머니 아버님이 상당히 걱정하는 말로 제게 얘기했습니다.

1. 그리고 바로 오늘 검찰청을 찾게 되었습니다.

1. 이전에 동대문경찰서에서 2명이 집으로 찾아왔고 명함을 두다가 새벽 1시경 경찰서로 전화해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그날 현장에 갔다와서 늦음) 이튿날 시경에서 형사 한 분이 직접 현장으로 찾아와 다방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1991년 5월 14일

박 경 민

☐자료 가1-43 (수사기록 325~331)

자술서

본적

주소

성명 이지혜

주민등록

직업 동아일보사 조사부 방송대 1학년

○ 만나게 된 경위는

학교에 입학하고 가입한 노래씨클에서 내 자신이 실망을 느끼고(노래공연조차 제대로 못함) 있는 상태에서 우리 씨클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요번에 입학한 4기생들끼리 모여 서로 고민을 해보기로 했다. 그런데 박경민씨가 좋은 형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 힘든 고민을 형이랑 같이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서 한 번 만나기로 했다. 그래서 4월에 대학로 센터키치킨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런데 형이 오랜 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그 옆에 호프집에서 기다리는데 형이 왔다. 그날 만나서 얘기한 것들은 우리 씨클에 대한 문제점과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모임을 만들었다고 우리 고민을 말했다. 형은 방송대의 특수성과 우리 씨클에 대해 잘 몰라서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다고 했고 그래서 더 만나 얘기하기로 하고 헤어졌다. 그러곤 계속 약속을 정했는데 서로들 잘 안지켜서 못 만나다 그 형이 연대에 있다는 소릴 듣고 만나러 갔다. 카페에서 나는 얘기는 사랑에 대해 서로의 생각을 말했고 5월 5일날 만나기로 하고 헤어졌다.

5월 5일날 학교에서 12시에 만나서 자기 소개를 했다. 우리가 모임을 유지하려면 서로 알고 있는 개인적 문제에 대해 알아야 했기 때문에 가정환경 직장문제 등을 얘기했다.

얘기가 끝난 후 형이 술을 먹고 싶다고 해서 막걸리를 먹다가 16:00경 밥을 먹으려고 식당에 갔고 한정덕이형은 피곤하다며 가만히 앉아 있기만 했다. 19:00경 옆에 있던 주점에 가서 각자 서로 다른 얘기 등을 했고 경민, 기환이형은 귀가했다. 차를 타기 위해 국

영언니와 한 형과 걸어가다 한 형이 다방에 가자고 해서 학림다방을 갔고 우리들은 사랑에 대한 얘기를 했다. 형이 술이 더 먹고 싶다고 해서 우린 가볍게 맥주를 먹기로 했다. 한 형이 아는 데가 있다고 해서 종로쪽으로 걸어가다가 식당 등을 들렀는데 웬만한테 문이 닫히고 안주가 너무 비싸서 그냥 걸어나다 한 형이 여관을 가자고 해서 막걸이를 사서 들어갔다.

나는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그저 기대 있기만 했고 형은 술을 계속 마시며 인생 이야기를 했다. 형은 자신이 힘들게 산 얘기를 했다. 23:00경 형이 취한 것 같았고 노래를 불렀다. 형은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거듭 얘기했고 운동이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라 말했다. 노래를 부르다 형이 울기 시작했고 5월 8일 죽겠다는 얘기를 했다. 처음 얘기하는 것이라 했고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살아서 일하는 것보다 죽어서 사람들 가슴에 남고 싶다고 말했다. 술이 취해서 일 거라고 생각했고 형의 말을 위협스럽게 사실이라 받아들이지 못했다.

피곤한 상태에서 우리는 잠을 잤고 5월 6일 9:00경 국영언니가 출근을 했고 11:00경 기철이 형이 일어났다. 어제 얘기가 불안해 나는 형이 깨자마자 형의 죽음에 대한 결심에 대해 물었고 형은 정말이라고 했고 나는 살아서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그 당시도 믿을 수 없었다. 16:00경 연대에 들어가야 한다고 해서 12:00경 여관에서 나와 돈이 없어서 은행엘 들렀다. 13:00 식사를 하려고 식당엘 갔는데 내가 눈물이 나서 밥을 먹지 못했고 그래서 그냥 나와서 연대를 가기 위해 차를 탔는데 집에 들러야 될 것 같아 14:00경 집에 들러 옷을 갈아 입고 나와 같이 정류장까지 걸었다. 형은 사람들 사랑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했다.

카페에 들렀고 형은 노트 등을 다 찢어버렸다. 주민등록증도 버릴려고 해서 내가 갖겠다고 말했다고 갖고 있다가 대책위 사람들에게 8일 아침 전해주었다. 15:00경 카페에 나와 1분칼라에서 사진을 찍었고 1장은 내가 받았다.

5월 7일 18:00경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어떻게든 더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형은 차가 와서 연대에 갔다. 19:00경 국영언니와 경민이형을 만났다. 경민이

형이 연락을 해서 막을 수 있길 바랐다. 맨처음 경민은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5. 7. 21:00경 경민이형이 전민련에 알렸다고 전화가 왔다. 그래도 불안해서 연대 비대위 전민련 사람을 찾아가 알렸고 그 분들은 말도 안된다며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것을 전하고 집에 돌아왔지만 계속 불안했다.

5월 8일 경민이형에게 분신사실을 듣고 9시 40분경 연대에 들어갔다. 전민련 사람이 어제 그 형을 찾았고 잠이두려고 새벽까지 있었으며 기철이형이 그들을 안심시키려고 했다고 한다. 5:00경 전화를 걸어 간다고 하고는 사라졌다고 한다. 12:00경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아는 것까지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991년 5월 14일

이지혜

☐자료 가1-44 (수사기록 332~336)

자술서

성명 송국영

본적

주거 서울

직업 신성전기통신공사 (경리부)

호

1. 86. 2. 보성여고 졸업 → 91. 3. 방송대 불어과 1년 → 신성전기통신공사 입사(91.4)

교회에서 운동권 자료 접촉, 운동권 선배 아는 사람 만나 고민. 방송대 입학(91. 3월)하여 소리새벽 가입(입학 7일후) 선배들과의 견해 차이에 고민. 4기생 몇몇과 의견일치하여 박경민의 소개로 김기철 만남(학교(성대) 앞 다방에서 저녁쯤) - 활동계약 즉, 시간적 제약 있는 사람이었고 서로의 얼굴 소개(국영, 경민, 지혜, 윤희, 기환).

1주일 정도 후 → 연대 분향소 찾아가서 김기철 있어 만났다. (국영, 지혜, 경민, 윤희)

5월 5일 준비모임 자기소개 있었음. 앞으로의 학습

내용, 방향 등 논의(11시30분부터 시작) → 장소는 학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하느냐에 관해(윤희, 윤희는 먼저감).

막걸리(그 자리에서) 마시고 2차 감(16-17쯤) → 유정.

시간이 좀 흘러 다른 사람은 되돌아가고 기철형, 나, 지혜만 남음. 그리고 대학로 학림다방 감(2층). 인생에 관해 얘기함. 즉 기철이 형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실무적인 일을 한다는 얘기와 지혜의 회사생활의 애로사항, 사랑얘기와 나의 공부방향성에 관한 얘기, 그리고 소리새벽에 대한 비판 얘기 등 21시 정도 다방에서 나와서 종로5가까지 걸어 갔다. 그러면서 어렵게 자란 것, 얘기 등을 나누며 노래를 부름, 그의 주위 모든 사람을 사랑했고 또 그리하며 모두를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반복해서 했음.

막걸리 4-5병과 과자 사서 어디 이야기할 곳 찾다가 내가 농담으로 여관에 가자고 제의했음(백제여관 5가-6가에 있는 곳) 지혜, 나, 기철이 형 여관으로 가서 여장 풀고 기철이형이 얘기 시작했음. 즉 여러분을 사랑한다, 공부 잘 될 것이다, 어쩌면 여러분 앞으로 못볼 것 같다는 얘기끝에 분신 얘기함. 내 느낌으로는 술김에 하는 자신의 어려운 생활 여건 탓에 한번 해보는 말로 착각, 그러다 나는 한대 맞음. 그 당시 내가 했던 얘기는 왜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에 관해 의문이 난다고 물어봤고, 맞았기 때문에 너무나 당황해서 심각하게 물어봄(왜 분신하려 하는지에 관해).

대답을 잘해 주지 않고 마냥 울면서 미안하다고 말함. 그래서 화제를 따로 돌림, 즉 인생 얘기라든지 삶의 철학이라는 점이 무엇인가에 관해. 형은 아버지의 재혼으로 부모에 관한 아들로서의 부담감은 일단 없어졌다는 얘기며 누나들에 관한 얘기 즉 버스안내양 했던 누나가 받는 고통을 알고 자신이 무척 아팠다는 얘기를 했고, 한대 철학과 3학년 기억해 달라는 얘기. 그 도중 자신을 따라다니며 자신에게 계기를 준 선배로 자신의 길이 정해졌다는 얘기를 함. 눈 붙이고 6일 7시 30분경 일어나 나는 9시 30분에 출근. 2시 30분쯤 지혜 전화 받음(7시 남영동에서 만날 약속). 7시에 지혜와 만나 그동안 기철이형과 나누었던 얘기 다 들음. 즉 내가 나간 뒤 들다 나와서 식당에 들른 얘기며 지

해가 은행에서 돈을 찾아 2만원 꺾우고 조금 건다가 사진(기설이형 것) 찍은 얘기, 여자친구에게(기설이형의) 전화한 얘기 그리고 다음날 오후 6시 약속하고 헤어졌다는 얘기 등, 그리고 지혜와 나는 고민 끝에 경민이형에게 전화해서 만나기로 약속, 만나서(8시 30분) 심각하게 털어놓았으나 잘 받아들이지 않았습(그냥 술 마시면서 하는 술버릇이거나 지혜에게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이라 얘기).

지혜를 먼저 보내고(23시 30분쯤) 경민형의 안심시키려는 말 듣고 귀가(12시 30분쯤).

5월 7일 아침 회사에서 지혜에게 전화(기설이형과의) 약속을 꼭 지킬 것을 당부. 9시쯤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끝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함.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고 얘기했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고민, 11시쯤 경민형과 통화했으나 지혜 행방 모름. 연대에 갔을 것이다 고백함(내 예감)

5월 8일 9시 출근하자마자 지혜에게 전화했으나 통명스럽게 받음(나에 대한 답답함 때문인지 ...).

전민권쪽에 가서 물어보았고, 문의했는데, 대답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한다는 확답을 들었다는 얘기를 들음.

그런 뒤 10시쯤 넘어 경민형에게 분실사실 얘기 듣고 상황실로 달려가서 위 진술서의 기자회견을 함(위 사실과 동일한 얘기).

1991년 5월 14일
송 국 영

☐자료 가-1-45 (수사기록 337~348)

서울지방검찰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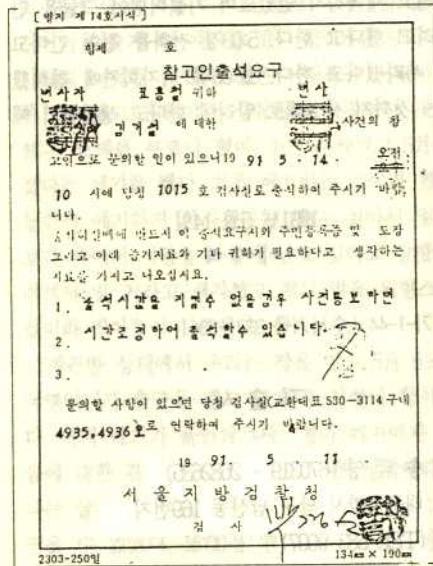
수신: 검사 박경순
제목: 수사보고

변사자 김기설에 대한 분실통신사건과 관련하여 참고인인 표홍철, 동 문성만, 동 허남춘, 동 주철수, 동 박석일을 각 91. 5. 14 오전 10시, 오후 2시, 3

시, 4시, 5시에 각 순차로 당청 1015호실로 출석하여 조사코저 동월 11일 동기속달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동인들이 출석치 않아 조사치 못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첨 부 : 참고인 출석요구서 및 특수우편물 수령증.

1991. 5. 14
검찰주사보 임영근



(수사기록 339~348)

* 박석일, 주철수, 허남춘, 문성만의 출석요구서 <생략>

☐자료 가-1-46 (수사기록 579)

범죄경력조회

번호: ZA01
근거: 강기훈 640329

인적사항

성명: 강기훈 주민등록번호:

본적: 서울

입건일 85. 11. 19.

입건관서명: 서울시경찰국

작성번호: 003243

죄명: 폭력행위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상기와 같이 자료를 통보합니다.
1991. 05월 14일

주민조회

DATE: 91/5/14

성별: 남 성명: 강기훈

생년월일: 64. 03. 29.

주민번호:

본적: 서울

주거: 서울

직업: 학생